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9호 HYUNBULNEWS.COM 2026년 8월 12일(음력 6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워터파크로 변한 동화사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성불 레벨업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여름캠프에서는 발우공양과 명상, 물놀이 등 수행과 놀이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 어린이들에게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진행된 물놀이 프로그램에서 주지 선광 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 모습. 글 · 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수성과 도전…'3파전' 형성되나

〈守城〉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③ 총무원장 선거 누가 뛰나

특별취재팀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연임 도전을 위한 채비를 갖추기 시작한 가운데,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도 교구장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가시화했다. 이번 선거는 현 집행부 성과와 향후 종단 운영 방향을 둘러싼 평가의 성격을 띠며 '수성과 도전'의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연임 도전' 진우 스님

종단 안정 · 힙불교 성과

연임 도전이 유력한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3일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을 임명하는 등 직무대행 체제를 준비하며 사실상 선거 체제 준비에 들어갔다.

진우 스님은 2022년 중앙종회 종책모임과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추대를 받아 단독 입후보해,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취임 이후에는 '선명상 대중화'와 '천년을 세우다'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조직개편으로 종무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선명상 보급과 불교박람회, 사찰음식대축제, 연등회 등 대중 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이른바 '힙한 불교' 흐름을 주도했다.

특히 임기 동안 종단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행보를 이어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취임 3주년을 맞아 △선명상 보급 △종단 재정 자립 기반 마련 △AI 포교 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임기 중 고운사 등 전통사찰이 피해를 본 대형 산불과 총무원 청사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 종단 운영의 부담을 안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승적 및 학력 논란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교구장 22년' 정념 스님

AI시대 미래비전 제시

정념 스님은 7월 31일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직을 사직하고, 8월 6일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출마회견 기사 2면〉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22년 6개월간 교구본사 주지를 지내며 역대 최장수 교구장 기록을 남겼다. 재임 기간 월정사를 수행·교육·복지·문화·환경이 어우러진 종합 수행도량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최초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20년간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명상치유센터 '옴뷔' 운영, 노스님 복지시설 조성,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운동 등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AI시대의 불교윤리 담론을 제시하며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증명된 성과가 전국 24개 교구로 확산된다면 한국불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종단 운영 비전을 밝혔다.

종단 안팎에서는 교구 운영 성과와 수행력, 미래비전을 갖춘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 한편, 중앙 종무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다크호스' 경우 스님

중앙 · 교구 두루 경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역시 8월 6일 교구장직을 사직하며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경우 스님의 출마 행보는 7월 22일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회장직 사퇴로 가시화됐다.

2015년부터 선운사를 이끌어온 주지 경우 스님은 '공심(公心)'과 '전법(傳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교구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본말사 공개 살림'을 도입하고 교구공동체 활성화에 힘썼다. 또한 농어촌 포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창 불교회관과 전주 신도시 포교당을 건립하는 등 새로운 포교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 행정과 교구 운영을 두루 경험한 이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반면, 짧은 선거 준비 기간 동안 현 집행부와 차별화된 의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관련 기사 2면〉

비구니회원葬 출범…"생애 끝까지 함께"

7월 28일, 법룡사서 발대식
광용 스님 "승가 회복 교두보"



비구니 스님의 출가부터 생애 마지막 회향까지 승가공동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복지 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7월 28일 서울 법룡사에서 '전국비구니회원장 발대식'을 봉행하고 비구니 스님의 상장례와 노후 돌봄을 아우르는 회원장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회원장은 비구니 스님의 출가부터 임종과 회향까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승가 복지 시스템이다. 지난해 1월 처음 구상된 이후 관련 회의와 설명회, 공청회 등 30여 차례의 공개 논의를 거쳐 이날 공식 출범에 이르렀다.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된다. 비구니 스님의 상장례를 지원하는 장례 봉행, 홀로 생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을 대상으로 한 전화·방문 상담 서비스다. 운영 재원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마련된다. 기본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상조비와 3일장 장례 비용 등에 사용되며 후원금은 회원장 운영과 상담 교육, 긴급 장례기금, 노후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된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발대식에서 "가슴이 벅차다"면서 "밀알 하나가 국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듯 한 생각 한 생각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스님의 삶은 공동체의 자산이며 회향 또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회원장을 추진해 비구니 승가공동체 회복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발원했다.

회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위원회와 장례봉행위원회, 전화방문상담위원회 등 3개 위원회도 구성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장례봉행위원회는 장례계획서에 따라 상장례 전 과정을 주관한다. 전화방문상담위원회는 상담을 신청한 노스님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회원장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선거보도 준칙

현대불교신문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독자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보도 원칙을 준수합니다.

첫째, 모든 후보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하겠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지양하며, 기사 분량과 사진, 제목, 편집 등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보도를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종단 운영 비전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검증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인신공격성 보도는 지양하겠습니다.

셋째,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보도는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하며, 논란이 있는 사안은 당사자의 입장과 반론을 함께 반영하겠습니다.

넷째, 종단의 화합과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면서도 종단의 화합과 민주적 선거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보도를 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독자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8월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
2026 MEDITATION, AWAKEN TOGETHER
제 7 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THE 7th SEOUL INTERNATIONAL MEDITATION EXPO
명상체험부스 & 세계명상부스
8.22 (토) - 8.23 (일)
10:00 - 18:00
학여울역 SETEC 제2전시실
오프닝행사
8.22(토) 13:30 ~ 14:00
오프닝공연
순야타(공), 치유의 소리
명상공연
8.23(일)
12:00 들숨날숨과 함께하는 명상음악
13:00 일본 염불명상
14:00 튀르키예 회전명상 세마
15:00 하와이 카히코 훌라 세리머니
16:00 티베트명상
주최 동국대학교 주관 dongguk UNIVERSITY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념 스님 “교구자치로 ‘화엄 종단’ 완성”

8월 6일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
AI시대 파고 넘으려 출마 결심
‘단임’ 선언…‘교구자치법’ 제정
“종책 · 미래비전으로 후보 선택”
질의응답서 단일화 가능성 시사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월 6일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계기와 정견을 발표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권력은 교구와 대중에게 내려놓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수행과 교육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청정한 승가를 만들고, 사찰의 담장을 넘어 아파하는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자비의 불교로 회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월정사 전 주지 정념 스님의 출마 서원 일성이다.

정념 스님은 8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계기와 정견을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오전 선운사 주지를 사임한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공감과 미래 공동대표 탄원·보인 스님과 소속 종회의원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정념 스님은 AI 대전환 시대의 파고를 넘어서는 새로운 종책을 제안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출마의 변을 전하며 단임을 선언했다. 스님은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서원으로 나서는 사람”이라며 “그 서원의 증표로 ‘단임’을 서약한다. 연임을 구하지 않고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야말로 사부대중께 올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다짐”이라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시사

정념 스님은 학연과 문중이 아닌 수행과 원력이 소임을 맡는 풍토를 만들고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스님은 “직능직 중앙종회의원은 직능 대표성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선출 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면서 “앞서 서약한 단임제를 종헌으로 명문화하고 사부대중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선거인단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총무원장 선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제안했다.

질의응답에서도 정념 스님은 단임제 추진에 대해 “한 번 더 연임한다고 해도 종단에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 어렵고, 종단이 경직되고 권력 중심의 문화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총무원장은 한 차례 소임에 원력을 다하고 좋은 후임자에게 종단 운영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구자치 로드맵 제시

22년간의 교구본사 주지로서 오대산 일원을 혁신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교구자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역시 제시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24개 교구본사로 이양하는 ‘분권형 종단’을 임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자치 행정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념 스님의 공약이다.

스님은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 주지 임명권을 교구본사로 이관하고 주요 종령 제정에는 교구장협의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며, 존립이 위태로운 미자립 사찰을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해 지역의 작은 사찰들이 스러지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앙과 교구와 개별 사찰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화엄의 인드라망과 같은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구의 입체적 예산 확보를 위해 △30% 포교기금 의무 조성 △교구 상생 공동발전기금 조성 △정부·지자체 연계 및 민관협력(PPP) △민간 포교기금·창작기금 등 4대 재정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AI시대 불교가 나아갈 길은…

종단의 AI 로봇 수계 및 가사 착의에 대해 “AI를 깊게 통찰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해 왔던 정념 스님은 자신의 종책 공약으로 ‘불교 AI 윤리 선언’을 내놨다. 스님은 “자비와 정견(正見)의 원칙에 기반한 ‘불교 AI 윤리 선언’으로 기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겠다”면서 “AI시대의 정신적 위기 앞에서 불교가 치유의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AI 로봇 스님 수계와 가사 착의에 대해서 “AI에게 수계하고 가사를 수하는 것보다 불교적 관점에서 AI 윤리 규범을 제정하는 일이 먼저다. 자비와 정견을 바탕으로 기술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고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가 천명 프로젝트’를 통한 출가 장벽 완화와 승려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승가복지 확대 계획도 전했다. 정념 스님은 “행자 교육과 강원 과정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늦깎이·만학 출가의 문턱을 낮추어 출가의 흐름을 다시 잇겠다”면서 “승려 의료비 전액 지원과 교구별 노후 요양 거점을 마련하고,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종단이 먼저 건강과 주거를 살펴 지원하는 능동형 복지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감 정책 있다면 단일화 가능”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과 대의가 같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종단 안팎에서 보내오는 기대와 지지가 큰 만큼 후보직을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선거를 통해 종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정념 스님은 “단일화는 한편으로 거의 필수적인 조건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한다”면서도 “저는 이 시대와 종단을 바라보며 종단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선거를 통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행 대중과 주변의 많은 대중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어 제가 함부로 후보직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누구라도 좋은 정책을 갖고 대중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뜻을 같이하는 일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향후 종도들의 여론에 따라 단일화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장에 해답이 있다”

22년 6개월을 월정사 주지를 맡으며 축적한 교구행정 경험도 총무원장 후보로서의 주요 강점으로 내세웠다. 정념 스님은 “세상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교구본사는 교구 대중의 수행과 복지, 교육, 전법을 책임지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현장을 바라보고 고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단의 현실을 잘 알고 실질적인 해법을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방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의혹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네거티브가 선거의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은 건전한 종책 선거와 종단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념 스님은 “종책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평온한 선거가 돼야 한다”며 “제가 바라본 종단과 사회,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간의 종책 경쟁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④ 선거운동 어떻게 하나

24개 본사서 ‘표심’ 잡기

종법이 정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1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들은 본격적인 종책 경쟁에 돌입한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종책자료집 제작 및 배부 △신문광고 △종책토론회 참석 등이다. 후보자는 종책과 공약, 경력 등을 담은 32면 이내의 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으며, 배부 수량은 선거권자의 2배 이내다. 신문광고 역시 불교계 신문으로 한정되고 총 6회까지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정은 전국 24개 교구본사 순회다. 후보들은 교구별 간담회를 통해 종도들과 만나 교구 현안을 청취하고 종단 운영 방향과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선거인단 321명의 상당수가 교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교구 방문은 표심을 가늠하는 핵심 일정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종단 원로의원을 비롯한 원로 스님을 예방하고, 전국 주요 선원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도 이어간다. 이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종단의 상징성과 영향력이 큰 만큼 후보들은 종단의 미래 비전과 운영 구상을 설명하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종책토론회, 이번엔 열릴까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토론회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다.

첫 공식 후보자 토론회는 2003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열렸다. 한국불교기자협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후보였던 종하 스님과 법장 스님은 종단 운영 비전과 주요 종책을 발표했다.

이후 2005년 제32대 선거에서는 한국불교기자협회와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등 4개 단체가 종책토론회를 추진했지만 후보자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2013년 제34대 선거와 2017년 제35대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가 종책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실제 개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최한 종책토론회는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마련됐다. 후보자 4명이 5분간 종책을 발표하고 사전 질문지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38대 선거 역시 다자 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후보 간 종책과 비전을 비교할 수 있는 종책토론회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중립 · 공명선거’ 과제

총무원장 선거에서 매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종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다.

종단 ‘선거법’은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교구본사의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캠프 참여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말사 주지가 교역직 종무원일 경우 종무직을 사직해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전과 물품, 여비, 향응 등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해 금권선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종무직을 맡고 있는 후보자의 공식 업무와 선거운동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여기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홍보 수단이 등장하면서 현행 선거법이 모두 규율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가 구성됐으나, 임의 기구라는 한계로 일부 문제 제기에 그쳐 활동에 아쉬움을 남겼다.

2012년 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3년과 2017년 총무원장 선거에서 공명선거위원단이 운영되며 선거 감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제38대 선거에서도 공명선거위원단이 운영된다. 교구별 1인 이상을 포함해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단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증거 수집과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후보 간 종책 경쟁과 함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가 이번 선거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 도각 스님 취임

8월 6일, 낙산묘각사서 임명식
"화합·사회적 책임으로 신뢰"
개산조 태허 조사 47주기 다례재
홍파 스님 "조사 스님 정신 잇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왼쪽)은 8월 6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공식 취임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자비행 실천과 종단 화합, 사회적 책임을 핵심 운영 기조로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음종은 8월 6일 서울 낙산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 47주기 열반다례재 및 제13대 총무원장 임명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원로와 사부대중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산조의 뜻을 기리고 새 총무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임 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관음종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 것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한다"며 "총무원장 소임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행을 종단의 사명으로 여기며 수행하고 실천하는 자리인 만큼 종단 화합과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정신을 종단 운영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각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정신은 언제나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다"며 "관음종도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과 함께하며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종단으로 더욱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종단 운영의 핵심 가치로 화합과 상생을 제시하며 자비 실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각 스님은 "자비를 위해 눈이 되고, 손이 되며, 길잡이가 되겠다는 관음종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화합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행 전법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비 나눔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음종을 만들어 가겠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도각 스님은 1990년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죽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낙산묘각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안거를 성만했으며 2020년 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일본 조세이탄광 위령재 집행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며 현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관음종 종무부장, 총무원 부원장, 12대 총무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임명식에 앞서 봉행된 '개산조 태허 조사 47주기 열반다례재'에서는 종정 홍파 스님이 법어를 통해 관음종의 창종 정신과 실천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홍파 스님은 "태허 조사 스님은 부처님처럼 중생 속으로 들어가 어려운 시대를 함께하며 수행과 포교를 실천했다"며 "오늘날 우리도 조사 스님의 믿음과 사상, 정신을 이어받아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전쟁 이후 태허 조사 스님은 2년 5개월 동안 매일 파고다공원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법을 전하며 절망 속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며 "이 같은 거리 포교 정신이 오늘의 관음종이 계승해야 할 수행과 포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연법을 언급하며 "작은 인연 하나도 큰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태허 조사 스님의 정신을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과 실천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태허 조사(1904~1979)는 포교와 교육, 사회참여를 실천한 선각자로 평가받는다. 1919년 경성예비고 졸업 뒤 일본 경응대에서 수학한 후 1928년 낙산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1940년 낙산묘각사 초대주지로 취임해 묘법연화경 등을 연구하며 교육과 포교에 정진했다. 1858년부터 2년간 서울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거리설법을 이어가며 '대중 속의 불교'를 실천했다. 1965년 관음종 창종 제1세 종정에 취임했으며 1979년 세수 76세로 열반에 들었다.

본사 주지 스님들 만류에 단식 회향

정념 스님 등 6개 교구본사 주지
7월 30일 단식 현장서 "중단" 호소
본사주지협, 11월까지 활동 중단



조계종 중앙종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총무원 청사 1층 로비에서 단식 정진을 이어온 종회의원 스님들이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간곡한 만류를 받아들여 단식 10일 만인 7월 30일 회향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동화사 주지 선광, 은해사 주지 성로, 고운사 주지 등운, 대흥사 주지 법상,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이날 오전 화성 용주사에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 제78차 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단식 중인 종회의원 스님들을 만났다.〈사진〉

이 자리에서 주지 스님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스님도 계시니, 모두 건강을 생각해 단식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성로 스님은 눈물을 보이며 재차 단식 중단을 호소했다. 성로 스님은 "이번에는 여기서 (단식을) 마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며 "교구장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시니 이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도 단식 현장에 함께 자리해 종회 파행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식 중인 스님들의 회향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공감과 미래 스님들은 "교구장 스님들이 오신 이유는 오로지 스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였고, 그 간절한 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단식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87차 회의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단식 사태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협의회 차원의 공식 단식장 방문은 하지 않기로 하고, 뜻을 같이하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단식장을 찾기로 했다. 회장단 구성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의회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일본 지진 희생자 애도

상진 스님, 7월 30일 애도문 발표
더프라미스, 긴급 모금 지원 확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7월 28일 규모 7.1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은 7월 30일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7월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두손 모아 발원한다"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해이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구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우려되는 후속 지진과 추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일본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뜻도 밝힌 상진 스님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 그리고 일본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강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현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02-735-3119 후원 계좌: 하나은행 158-910020-26904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임은호 · 이현희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가운데)은 8월 3일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오른쪽), 사회부장에 진경 스님을 임명했다.

조계종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 임명

8월 3일, 사회부장에 진경 스님
"종단 안정 · 화합에 역할 해달라"

조계종 총무부장에 정문 스님, 사회부장에 진경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고 정문 스님과 진경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두 스님에게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정문 스님에 대해 "그간 스님께서는 종단의 주요 소임을 두루 맡으며 종단 운영과 안정, 화합에 모범을 보여 왔다"며 "종도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저 역시 종단에 처음 올라왔을 때 사회부장으로 계시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고, 종회의장으로 재직할 때도 늘 소통으로 종단을 이끌어온 존경하는 스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엄중하고 긴장된 시기인 만큼 수석 부장으로서 역할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진경 스님에게는 "이미 한 차례 사회부장 소임을 보면서 사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쌓았고, 사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뜻을 함께해왔다"며 "역량을 잘 갖췄다고 판단해 다시 소임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교황청 대표단 "종교 넘어 세계평화"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대표단
8월 3일, 서울 진관사 방문
법해 스님 "마음 모아 화합"

이현희 기자 hyeonhae@hyunbul.com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공동대표단은 8월 3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나눴다. 사진은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장관과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공동대표단이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를 찾아 종교 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교황청 종교간대화부(장관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는 8월 3일 서울 진관사를 방문해 종교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갖고 세계평화를 위한 협력의 뜻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조지 제이콥 쿠바카드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장관, 인두닐 자나카라타나 코디투와꾸 칸카남라게 몬시뇨 차관을 비롯해 신부와 수녀 등 공동대표단 35명,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8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강대에서 열리는 '제1회 유교-그리스도교 학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학회 공식 일정에 앞서 진관사를 찾아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법해 스님에게 진관사 소개를 받은 후 전통문화연구원으로 이동해 차담을 나눴다.

법해 스님은 "종교를 넘어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도량인 진관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어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며 "불교의 자비와 가톨릭의 사랑은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지만,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마음을 모으는 종교이고, 우리 역시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인류 행복과 세계평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황청과 한국불교, 그리고 진관사가 사회화합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쿠바카드 장관은 "사찰이라는 공간은 다른 종교인에게도 불교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다른 종교를 통해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 평화는 곧 인간의 마음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뜻을 갖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종교 간 상호 이해를 굳건히 하고 공동체 간 우정도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오늘 진관사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사랑이 함께 피어나 뜻깊다"고 인사했다.

이후 대표단은 짧은 명상을 체험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법해 스님은 '늘 깨어 있으라'는 의미의 경쇠를, 쿠바카드 장관은 바티칸 액자를 선물했다. 끝으로 쿠바카드 장관은 '평화가 깃든 진관사의 아름다움이 오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방명록을 남기며 진관사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기자칼럼

생명나눔을 사리로 남긴 회향

고승의 원적 뒤 다비식에서 수습되는 사리는 평생에 걸친 수행의 결정체로 여겨진다. 사부대중은 사리 앞에서 스님의 청정한 삶과 수행을 기리며 신심을 다진다. 그러나 사리만이 참된 수행자의 증표는 아닐 것이다. 최근 원적에 든 창원 성주사 혜월당 범허 스님의 마지막 행보는 수행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준다.

범허 스님은 7월 24일 세수 67세, 법랍 28세로 입적했다. 전남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에서 하안거 정진 중 뇌출혈로 쓰러진 지 열흘 여만이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전국 제방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며 묵묵히 참선에 전념해 온 수좌는 끝내 좌복 위에서 생을 마쳤다. 수행자의 장엄한 회향이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숨을 거둔 뒤 더욱 깊은 울림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남은 사대육신까지도 중생에게 모두 회향하고 싶다"는 생전의 원력에 따라 스님은 심장과 간, 폐를 비롯한 장비와 피부 조직을 기증했다.

중증 환자 네 명이 새 생명을 얻었고, 화상 환자는 스님의 피부를 이식받아 다시 삶을 이어갈 희망을 얻었다. 수행자의 육신이 생사의 기로에 선 이들을 살려낸 기적이 된 것이다.

불교에서 회향은 자신이 닦은 선근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이타행의 실천이다. 스님은 임종게에서 "올 때도 한 물건 없었고 갈 곳 또한 없으니 평생의 회한이 달빛 속에 부서진다"고 읊었다. 평생 닦은 깨달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루던 마지막 육신마저 중생에게 온전히 내어준 스님의 이타적 행보는 〈금강경〉이 설하는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의 구현이다.

다비장에 남은 오색 찬란한 구슬만이 사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가슴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과 상처 입은 피부 위에 새롭게 돋아난 살결 역시 범허 스님이 세상에 남긴 빛나는 사리일 것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美 국방부 군종부, '불교성전' 전군에 첫 배부

창설 250년 만, 육·해·공군 군종실
태고종 스님들 美 군종포교 핵심 役



미 육군 군종법사 혜정 스님(왼쪽)이 은사인 태고종 북미 · 유럽교구 회주 종매 대종사에게 새로 발간된 미 군종용 불교성전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태고종 북미·유럽교구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미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성전〉을 공식 배부했다. 미군 내 불교가 장병들의 신앙과 정신적 돌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이 과정에서 태고종 스님들이 미국과 주한미군 군종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태고종 북미·유럽교구(회주 종매 대종사)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군종부(Chaplains Corps)는 7월 20일 미 육·해·공군 각 군 군종부와 예하 부대 군종실에 군종용 〈불교성전〉 'The Teaching of Buddha'를 공식 배부했다. 성전은 영국과 캐나다 군종부에도 함께 전달됐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종교 활동 지원을 위해 창설된 미국 군종부는 올해 창설 250주년을 맞았다. 현재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의 군종장교 약 3000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각 군 군종참모는 통상 소장 계급이 맡고 있다.

이번에 배부된 〈불교성전〉은 미국 군종부의 의뢰를 받아 샌프란시스코 미불교진흥회(Society for the Promotion of Buddhism)가 군포교용으로 새롭게 제작했다. 표지에는 미군 군복 색상을 적용해 장병들이 군장 속에 자연스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260쪽 분량의 성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비롯해 사성제와 팔정도, 삼법인, 연기, 중도, 해탈문, 정토사상, 마음정화 수행, 불자의 동료애, 재가불자의 수행법 등 불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 군종실을 통해 장병들에게 제공돼 수행과 상담, 종교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전 배부는 미군 내 불교 군종포교의 성장과 함께 태고종 스님들의 활약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북미·유럽교구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에서 활동하는 불교 군종법사 8명 가운데 5명이 태고종 스님이며 국내 주한미군 부대 군법사 역시 태고종 스님이 맡고 있다. 국내외 군종 현장에서 태고종이 불교 군종포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 육군 군종부 미남부 군종모병소장이자 군종법사인 혜정 스님(소령·Somya Malasri)은 이번에 제작된 성전 가운데 3권을 은사인 태고종 북미·유럽교구 회주 종매 대종사에게 전달했다. 혜정 스님은 종매 대종사에게 성전의 편찬 취지와 구성, 미국 군종포교 현황 등을 함께 설명했다.

종매 대종사는 초대·2대 교구 종무원장을 지내며 북미·유럽 포교의 기틀을 세웠다. 미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불교용어 2800여 개를 영어로 알기 쉽게 풀이한 〈한영불교사전〉과 영문 불교 개론서를 집필해 서구에 한국불교를 전하는 언어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태고종 북미·유럽교구 관계자는 "미 군종부 역사상 처음으로 〈불교성전〉이 전군에 공식 배부된 것은 미군 불교포교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 육군 불교 군종법사의 과반과 주한미군 군법사를 태고종 스님들이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성전 배부가 국내외 군포교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6부산국제불교박람회 "경험하는 불교"

전통 불교문화의 진수와 최신 트렌드가 어우러진 '2026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6~9일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렸다. 227개 업체가 참여해 355개 부스를 꾸린 올해 박람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박람회가 청년에게는 신선한 영감을 선사하고, 세대와 계층을 이어주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개막 첫날 박람회장을 방문, 다채로운 부스를 살폈다.

하성미 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태고종, 군포교 보폭 넓힌다

7월 27일, 해군작전사령부 격려
28일 해군교육사령부서 첫 수계
총무원장·종회의장, 육군 법회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육군과 해군을 잇달아 찾아 수계법회와 위문 활동을 펼치며 군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병들의 신행활동 지원은 물론 군포교 기반 확대와 장병 복지 증진에도 힘을 쏟으며 포교 외연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7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군포교와 장병 복지 지원에 나섰다.〈사진〉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국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태고종도 장병들이 신심을 바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맡은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진 스님은 해군작전사령부에 위문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곽 사령관에게 반가사유상과 염주, 향, 부채 등을 선물했다. 이어 스님들은 군함을 찾아 함장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살폈으며, 부대 내 해운사 법당을 참배한 뒤 군 장병들의 신행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보시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총 700만원이다.

상진 스님은 다음 날인 28일에는 창원 해군교육사령부 보국사에서 제726기 해군 신병 4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계사로 나선 상진 스님은 이날 해군교육사령부 수계법회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군포교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태고종의 군포교는 해군에 앞서 육군에서도 이어졌다. 상진 스님은 7월 4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3000명에게 수계하고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25일에는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이 같은 장소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이 최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 수계법회, 해군작전사령부 위문 방문 등을 잇달아 이어가며 군포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고종은 "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포교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부처님 자비 정신이 군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임은호 기자

불교계, 경북 수해민에 긴급구호 활동 펼쳐

더프라미스 · 나누며하나되기
안동 · 의성에 맞춤형 지원



최근 경북 곳곳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다.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안동과 의성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더프라미스 재난복지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 팽목마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마을을 방문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거처를 옮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안동시 팽목마을에서는 침수된 공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빗자루와 옷걸이, 빨래집게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가구에는 여름용 토퍼와 이불 세트, 제철 과일 등을 전달했다.〈사진〉

의성 구계리 마을에서는 수해민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로당 2곳에 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95세 어르신에게 토퍼와 속옷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쌀과 반찬거리도 지원했다.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 스님)도 7월 27일 안동시청에서 '안동시 수해민 긴급구호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쌀, 주방·세탁 세제, 신발 등 3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이현희 기자

국가봉사견 존엄한 삶 위해 협력

조계종 중신회, (사)마침표와 MOU
입법청원 · 입양 캠페인 등 추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와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마침표(이사장 이영)가 국가봉사견의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처우 개선 강화에 뜻을 모았다.

중신회와 지속가능발전연구소마침표는 7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국가봉사견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청원 홍보 및 불자 참여 독려 △은퇴 국가봉사견이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공동 입양 캠페인 추진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제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이다.

정원주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견이 은퇴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국가봉사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입법 청원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 이사장은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봉사견 복지 향상과 입법 추진을 위한 더 큰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7일 부산 벡스코의 대한민국관을 찾아 불교문화 홍보 부스를 라운딩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개국 75명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은 7월 27일 범어사 선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세계 각국의 유산 전문가들이 7월 28일 '기념 유산 필드트립'에 참가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했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7월 26일 사찰음식 장인 도림 스님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찰 다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K-불교 '살아있는 유산' 가치 재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7월 28일, 11일간 대장정 회향
대한민국관 12만명 관람 대성황
선명상·영산재 등 호평 이어져
범어사 사찰음식으로 '문화외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11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162개국 3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이 신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세계 주요 불교 문화유산이 목록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불교의 유·무형 유산이 지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독창적인 문화외교 무대가 되었다는 평가다.

개최국 공식 전시관인 세계유산 대한민국관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누적 관람객 12만명을 돌파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요 사찰이 함께 마련한 불교체험 부스에는 각국 대표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통도사의 홀로그램 미디어아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인경체험, 봉원사의 영산재 시연 등은 한국불교의 진수를 세계에 알렸다.

치열한 외교 일정에 지친 각국 관계자들을 위한 치유의 시간도 호응을 얻었다.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화두 선명상'과 오감을 깨우는 '차명상'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휴식과 집중을 선사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기획한 필드트립을 통해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한 세계유산 전문가들은 신라 불교미술의 숭고함과 치밀한 과학적 설계에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감탄했다.

문화외교의 정점은 7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사찰음식 만찬'이었다. 나예프 알파예즈 유네스코 문화담당 사무총장보 등 17개국 대표단 75명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 1700년 수행의 정수가 담긴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만찬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핵심 사상인 '세계일화(世界一花)'를 국제사회에 화두로 던졌다. 스님은 "불교에는 세계는 하나의 꽃이며 너와 내가 결코 둘이 아니라는 연기의 가르침이 있다"며 "사찰음식은 이러한 공존과 연대의 철학을 정성껏 담아낸 결정체이자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는 수행이며 생명에 대한 깊은 보은"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스님은 "기후위기와 환경 변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찰음식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삶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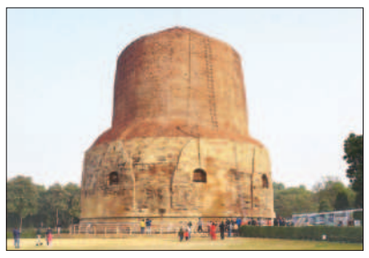
이에 나예프 알파예즈 사무총장보은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담긴 사찰음식은 모든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화답했다.

사찰음식의 인기는 26일 벡스코 총회 현장에서 열린 'K-디저트 데이'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조계종 사찰음식 장인 도림 스님이 직접 준비한 팥양갱, 금귤 정과, 흑임자 다식 등 다과 5종과 연꽃차 500인분은 조기 품절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인류의 유산을 포용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내년 6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 불교유산 대거 등재

인도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日 아스카데라·태국 사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새롭게 등재된 인도 사르나트 고대 불교 유적.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인 세계 주요 불교 문화유산들이 세계유산 목록에 대거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7월 25일 등재가 확정된 인도의 '사르나트(녹야원) 고대 불교 유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불법을 전한 초전법륜지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성도지인 보드가야,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와 함께 4대 성지로 꼽힌다.

이와 함께 백제 기술자들이 파견돼 부여 왕흥사를 모델로 지은 일본 최초의 본격 사찰 아스카데라가 포함된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 수도'와 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불교 사원인 '왓 프라마하탓 사원'도 새롭게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7일 범어사 사찰음식 만찬 자리에서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위원회의 값진 결정과 헌신에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8개 회원종단도 7월 27일 공동 담화문을 내고 "사르나트는 부처님 깨달음이 중생을 향한 가르침으로 이어진 불교사의 출발점이자,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처음으로 펼쳐진 성스러운 공간"이라며 "이번 등재는 사르나트가 지닌 역사적·종교적·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가 함께 인정한 뜻깊은 결실"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불교계도 사르나트에서 펼쳐진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인류의 평화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하성미 기자

진관사 국행수륙재 시연

미래세대 동참 퍼포먼스
"세계유산 등재에 만전"


7월 26일 진관사 국행수륙재 시연 모습.

7월 26일 벡스코 대한민국관 무대에서는 600년 역사를 이어온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핵심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를 떠도는 외로운 영혼부터 미물의 생명까지 모두 청하여 불법을 전하고 위로하는 불교의 대표적 의식이다.

이날 시연은 4일간 치러지는 방대한 의식 중 핵심만을 압축해 유네스코의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 맞춰 재구성됐다. 도량을 수호하는 '옹호게(擁護偈)'를 시작으로 스님들이 바라를 울리는 '명발(鳴鈸)', 꽃과 향을 올리는 '향화게(香花偈)', 공덕을 회향하는 '가지게(加持偈)'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님들뿐만 아니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 어린이·청소년 법회 소속 미래세대들이 적극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처님과 보살 등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관람객들에게 안내 팸플릿과 '수륙과'를 나누어 주는 퍼포먼스를 펼치자, 유네스코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연을 총괄한 조계종 최초의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무대를 마친 후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스님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류와 우리 사회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발원하며 소리를 냈다"며 "진관사 수륙재의 숭고한 생명 존중 의식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등재 준비와 후학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바다와 선명상, 부산 북항서 만나다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
8월 1일, 부산 북항 잔디광장서
주석 스님, '눕명상' 마음치유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부산명상협회는 8월 1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은 협회장 주석 스님이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변했다. 푸른 바다와 넓은 잔디광장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마음을 돌보는 선명상이 펼쳐지며, 명상이 산사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명상협회(BMA, 협회장 주석 스님)는 8월 1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6 북항 오션 SUP FESTA'와 연계해 열렸으며, '명상을 일상으로'를 주제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명상협회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 본부장 일감 스님과 사무국장 혜오 스님, 부산명상협회 도국·지안·수완 스님,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 스님, 성기환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과 시민·불자·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명상문화 확산에 뜻을 함께했다.

부산명상협회장 주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명상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호흡을 살피고 마음을 돌보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실천이다. 앞으로도 명상이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석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정오 스님과 일감 스님, 성기환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이 축사를 전하며 선명상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일감 스님의 안내로 참가자들이 선명상의 의미와 호흡법을 익히며 본격적인 명상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이어 주석 스님은 크리스털 싱잉볼의 맑은 울림 속에서 바디스캔과 리마인드 명상을 접목한 약 1시간의 '눕명상'을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매트 위에 몸을 눕힌 채 부산항을 스쳐오는 바닷바람과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감각을 하나씩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도국 스님의 태극권 시연이 펼쳐졌다. 부드러운 동작과 호흡이 어우러진 태극권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수행의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운영한 '마음처방전' 체험 부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누구나 자유롭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명상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2026 북항 오션 SUP FESTA' 개막식이 이어지며 해양레저와 명상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의 막을 올렸다. 스탠드업 패들보드(SUP)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과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되면서 북항은 휴식과 체험, 치유가 공존하는 여름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부산명상협회는 202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명상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 제3회 부산국제명상페스티벌은 해양문화와 선명상을 접목한 도심형 치유축제로, 수행이 산사를 넘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부산 북항이 해양레저와 명상, 문화와 치유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명상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행사로 평가됐다.

범어사 어린이 여름캠프 '들숨날숨'

7월 28일, 4일 만 108명 마감
붓다 골든벨 · 물놀이 등 다채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범어사는 7월 28일 보제루에서 '들숨날숨-SUMSUM 범어사 어린이 여름캠프'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사찰에 머물며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캠프는 모집 시작 4일 만에 모집 인원 108명의 등록이 마감됐으며, 30여 명의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무엇보다 행사는 범어사 청년회 '금어'와 대불련 소속 학생들이 지도교사로 나서 든든함을 더했다.

이날 입재식은 사찰예절 안내와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범어사 기획국장 석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사찰을 찾은 어린이들을 맞았다.

석산 스님은 "저 역시 초등학생 시절 이곳 범어사에서 어린이법회에 참가해 출가의 꿈을 키웠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찰 생활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신나는 물놀이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선생님과 스님들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캠프의 핵심 주제인 '들숨날숨' 명상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법진 스님은 "들숨에는 세상의 맑고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내 안의 화나고 미운 마음을 밖으로 버리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는 'SUMSUM'이라는 큰 주제 아래 네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화합을 다지는 'SUMSUM Friendship(레크리에이션, 물놀이)'을 비롯해 불교 교리를 재미있게 배우는 'SUMSUM Mind(붓다 골든벨, 108배)', 창의력을 키우는 'SUMSUM Creative(팔상성도 그리기, 연꽃등 만들기)', 심신을 달래는 'SUMSUM Rest(명상)' 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선원 학생들, 쉼으로 마음 채우다

7월 24~26일, 부산지원서
혜도 스님 "성장 계기 되길"



한마음선원 본원 학생회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 참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쉼의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본원 학생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쉼, 심(心): 마음을 쉬어라'를 주제로 2박 3일간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학생회원과 지도교사 등 69명이 동참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입재식 환영법문에서 "이번 수련회가 몸의 휴식을 넘어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인연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수련회는 '쉼'이라는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날에는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너무 참다, 친해지자!'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FOREST' 프로그램에서는 각자 짊어지고 온 마음의 짐을 나누고, 좌선과 산책, 얼음 족욕, 물풍선 피구 등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물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패러디한 '번뇌 타파스'도 펼쳐졌다. 학생들은 번뇌가 뭉쳐 탄생한 괴물 '불가살'을 물리치는 '한트릭스'가 돼,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행 선사의 법어를 담은 노래를 제작했다. 완성된 노래를 조별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이며 번뇌를 녹이고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무대를 꾸며 호응을 얻었다.

둘째 날에는 청사포와 미포, 흰여울문화마을, 국립해양박물관 등 부산의 명소를 조별로 탐방하며 '마음 미션'을 수행하는 '부산, 야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어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었다. 아울러 버스킹과 장기자랑, 법우들의 지난 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심쿵, 쿵'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돈독히 했다.

마지막 날에는 운력과 회향식에 이어 부산지원이 마련한 아르떼뮤지엄을 관람했다. 학생들은 빛과 소리, 공간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감상하며 수련회의 마지막 추억을 쌓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큰 위로와 휴식을 얻었다"며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며, 일상에서도 그 의미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경남 결집대회, 미래 포교 모델 제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가능성 확인
지역 협력형 포교모델 성과 공유



부산·경남 불교계가 공동 추진한 '2026 부산·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가 미래세대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지역 협력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7월 31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6 부산·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 평가회'를 열고 행사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부산·경남 불교계와 복지·청소년 기관 등 21개 기관·단체가 참석해 결집대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집대회가 지역 사찰과 기관, 청소년단체, 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형 포교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를 비롯해 체험형 포교부스, 디지털 스탬프 프로그램 '붓다GO', 문화공연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무엇보다 평가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수계법회가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평가회에서는 앞으로의 발전 과제로 △행사 총괄 운영체계 강화 △실무 중심의 사전 준비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기반 포교 시스템 고도화 △체험 부스와 공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이번 결집대회는 지역의 사찰과 기관, 불자들이 함께 만들어 낸 협력형 포교의 성공 사례"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교 시스템을 구축해 부산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초등생 100명, 성주사서 '마음 ON!'

7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조기 마감…명상 · 물놀이 등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포교와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성주사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간 '마음 ON!'을 주제로 제37회 보리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템플스테이에는 전국 각지에서 초등학생 100명이 참가했으며,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았다.

법안 스님은 "여러분에게는 가족과 친구처럼 소중한 보물이 많겠지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며 "2박 3일 동안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상에서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사찰예절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조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협동심을 키웠다. 이어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선우 스님의 지도로 사운드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새벽예불과 108배 등 전통 수행을 체험하고 '내 마음의 ON'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계곡 물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구들과 우정을 쌓으며 여름방학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무더위 잊은 천진불

남해 용문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10~11일엔 청소년 대상 개최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는 8월 1일 '2026 하계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우리가 만나는 붓다피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사찰에서 하루를 보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즐겁게 배우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승원 스님은 "어린이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이번 경험이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어 미래의 건강한 불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어린이·청소년 포교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동련이 운영을 맡아 연령에 맞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용문사 신도회와 거사림은 아이스크림과 요거트를, 지장회는 떡과 과일을 후원하며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어 용문사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온(Mind On) 템플스테이'도 개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신흥사 '녹색사찰' 협약

8월 1일, 울산불교환경연대와
천도 스님 "생명존중은 자비행"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 스님)와 울산 신흥사(주지 인경 스님)는 8월 1일 신흥사에서 녹색사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과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을 비롯한 신흥사 사부대중이 참석해 부처님의 생명존중과 연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속 환경실천, 생명살림 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도 스님은 '기후위기 시대, 불자의 환경실천' 주제 법문에서 "자원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 자체가 수행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환경실천 약속문을 함께 낭독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물과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실천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살림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와 신흥사는 환경교육과 자원절약, 생태문화 확산, 녹색불교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실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만당 스님 세운 기틀 위에 문화 쌓겠습니다”

지역 불교人 영광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

수행 · 문화 열린 도량 지향
독채형 템플스테이 등 추진
문화 통해 미래불교 제시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제불교 최초 전래지이자 천년고찰 영광 불갑사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열반한 만당 스님의 중창불사를 이어받은 주지 덕상 스님〈사진〉은 이제 불갑사를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수행과 문화, 포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다.

덕상 스님은 은사 만당 스님이 평생을 바쳐 세운 도량을 “튼튼한 뼈대”라고 표현했다.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은 그 위에 문화와 사람, 지역이 함께 숨 쉬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한다.

“은사 스님께서는 불갑사의 훌륭한 뼈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위에 문화라는 살을 붙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덕상 스님이 그리는 불갑사의 미래는 종교의 울타리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민과 관광객, 불자와 비불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꿈꾼다. 8월 말 완공 예정인 교육관에서는 인문학 강의와 사찰음식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쉬고 배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덕상 스님은 “사찰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은 아직도 많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이 앞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포교 역시 기존의 틀을 넘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불갑사 마라난타 불교대학은 지금까지 21기에 걸쳐 5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며 지역 불자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현재 22기 수강생들의 수계식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전반을 신설해 보다 깊이 있는 불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덕상 스님이 가장 큰 기대를 거는 사업은 전통등체험관이다. 불갑사 곳곳에 전통 한지등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전통등 제작과 전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덕상 스님은 “전남에는 아직 전통등 분야 무형문화 자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영광군과 함께 전통등 제작기술을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양한 미래 불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할 기념관과 개방형 수장고를 비롯해 노후 전각 보수, 산내 암자 복원사업 등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템플스테이관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독채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덕상 스님은 “현대인들은 조용히 혼자 머물며 쉬는 공간을 원한다”며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진정한 쉼과 수행을 제공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덕상 스님이 바라보는 영광불교의 미래는 결국 지역과의 상생이다. 불갑사를 중심으로 불갑면을 전라남도 불교성지순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연결하는 순례길을 조성해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리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불갑사와 함께하니 지역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지역도 살고 사찰도 살아납니다.”

미래인재 양성 ‘선연 7기’ 세종서 모였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세종 영평사서 템플스테이



한국불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선연(禪緣) 7기 불교핵심인재개발 템플스테이’가 7월 31일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에서 입재했다.〈사진〉

이번 템플스테이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전국에서 모인 56명의 불자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입재식에서 주지 환성 스님은 환영법문을 통해 “선연에서 맺은 인연은 2박 3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질 소중한 불연(佛緣)이 될 것”이라며 “좋은 친구를 만나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이번 선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포교국장 도진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선연 7기 참가 청소년들의 입재를 축하하고, 이번 템플스테이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연이수 학생(청담고 2)이 대표 봉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연 7기의 모든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선연 7기를 총괄한 권진영 동국대 부속선화여고 교장은 “선연은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핵심인재개발 프로그램”이라며 “2박 3일 동안 수행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법문과 군법사 상담, K-명상과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성찰을 비롯해 AI 특강과 AI 콘텐츠·장엄등 제작 실습, 불교 청년 창업가와의 만남, 청년 불교문화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불교적 가치와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200여 청년불자, 화엄사서 도반되다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수행 · 교류…청년포교 도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구례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와 천은사 일원에서 ‘제17회 영 부디스트 캠프(KBUF 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했다. ‘가르침은 빛으로, 우리는 평생 도반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의 대학(원)생 청년불자 200여 명이 참가해 수행과 신행,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며 불연을 다졌다.

캠프 첫날 화엄사 화엄원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대회사와 치사, 환영사, 축사를 들으며 2박 3일간의 원만한 회향을 발원했다.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이번 캠프에서 맺은 인연이 평생 서로를 지탱하는 도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엄사는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대불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대불련 총동문회도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2박 3일 동안 화엄의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의 등불로 삼고 평생 함께할 도반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속초 보광사, 일주문 정초석 봉안

8월 3일, “진리 받드는 밑돌”



속초 보광사(회주 석문 스님)가 일주문 건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정초석을 봉안했다.

보광사는 8월 2일 일주문 건립 현장에서 정초석 봉안식을 봉행했다. 봉안식에는 시민과 불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천년 도량 기틀을 세우는 불사의 원만 회향을 염원했다.

이번에 봉안된 정초석은 양양 상월천리에서 운송된 35톤 규모의 거암 2점이다. 시공은 50년 경력의 강현구 석공 장인이 맡았다.

회주 석문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오늘 봉안하는 이 돌은 천년 도량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며 진리와 지혜를 받드는 밑돌”이라며 “이 위에 세워질 일주문이 시민과 함께하는 자비의 문이 되고 속초 미래를 여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선운사, 윤명 대선사 43주기 추모다례재

7월 31일, 하안거 포살법회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7월 31일 초대 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 대선사 4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오후에는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와 불기 2570년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문도 대표 인사말을 통해 “선운사를 교구본사로 승격시키고 도량을 일신해 사격을 갖춘 스님의 유지를 이어 서로 화합하고 도량을 잘 가꾸며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불기 2570년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으며, 이어 열린 불기 2570년 2차 교구종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24교구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선사 제50회 여름숲속학교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50번째 어린이 여름숲속학교를 열고 웃음꽃 가득한 천진불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으며 원만히 회향했다. 이번 여름숲속학교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 50여 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교리와 수행, 전통문화 등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입재식에서 주지 호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진흙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고결한 꽃을 피워내는 여름날의 연꽃처럼, 1박 2일 동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져 달라”고 격려했다.

모든 일정은 수계식과 수료식을 끝으로 원만히 회향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금산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간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4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템플스테이 ‘나도 쉬고 싶다’를 진행했다.

첫날 참가자들은 숙소 배정과 입재식을 시작으로 부처님 품 속에서 놀기, 저녁공양, 저녁예불, 부처님 드림캐쳐 만들기에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아침공양 후 다도체험과 연꽃등 만들기, 반려 식물 심기, 천연 버물리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붓다 이니셜 합장주 만들기, 어린이 수계식, 나에게 편지 쓰기, 점심공양, 방정리 및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화평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사 제46회 여름불교학교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찾아봐요! 운문의 숲’을 주제로 제46회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첫날에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 교육과 ‘이웃과의 첫 만남’, 경내를 탐방하는 ‘운문 탐험대’, 전통놀이 강강수월래, 108배 염주만들기,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과 대웅전에서 수계식이 봉행했다. 이어진 회향식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주지 은광 스님은 “46년 동안 여름불교학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과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번 인연이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광주 동원사 어린이 여름캠프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5회 동원사 어린이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너즐·나즐·우즐(너도 즐겁게! 나도 즐겁게!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놀자!)’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캠프에는 어린이 40명을 비롯해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함께 했다.

8월 1일 열린 입재식에서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 곁을 떠나 친구들과 스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지장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다. 절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좋은 인연으로 남아 훗날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 이제사 ‘마음등불 캠프’

공주 이제사(주지 백거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8~29일 마련한 ‘2026 청소년 마음등불 꿈사리 마음등불 캠프-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다’가 전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원만히 회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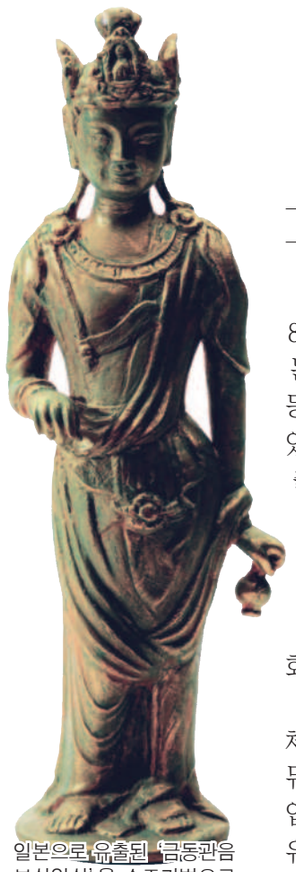
‘2026 청소년 마음등불 꿈사리 마음등불 캠프’는 조계종이 주최하고 이제사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 20명이 참가한 캠프에서는 1박 2일 동안 명상과 공동체 활동, 마음 나누기, 108배 등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지 백거 스님은 “자신의 꿈을 위해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한 가지씩은 스스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재현으로 만나는 국외 소재 유산


일본으로 유출된 '금동관음보살입상'을 소조기법으로 재현한 영덕 스님의 '소조관음보살입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국외 소재 문화유산은 29개국 801개 처에 25만6000여 점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교나 문화 교류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이전된 유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현대기 무단으로 반출된 것들이다. 특히 사찰에 봉안됐던 성보유산들은 전부 도난 및 무단 반출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현재 국외에 소장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재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 공·사립·대학 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온(ON) 우리문화유산'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북아불교미술 연구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와 해외로 유출되거나 잊혀진 문화유산을 전통 기법으로 재현하는 장인 모임인 나우회(懶牛會)의 협조로 이뤄진다.

동북아불교미술硏 · 나우회
국외 소재 유산 재현전 개최
문체부 '지역 순회展' 일환
장인 재현 작품 63점 전시
9월 5일까지 이천아트홀서
한국민속극博서 전시 이어져


일본 규수 후모지 소장 '고려 금동보살좌상'을 전통 기법으로 재현한 한봉석 장인의 '목조보살좌상'.

전시는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경기도 이천아트홀 아트갤러리에서,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공주 소재 한국민속극박물관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은 해외에 소장된 원작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나우회 소속 장인들이 전통 기법으로 재현한 작품들과 초대 작가 작품 등 63점이다.

특히 국외 소재 불교문화유산들을 재현한 작품이 눈길을 끈다. 영덕 스님은 일본으로 유출된 '금동관음보살입상'과 일본 교토 후지이유린찬 소장 '고구려 원오리소조불상',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철제압출불좌상' 등을 소조 기법으로 정교하게 복원했다. 한봉석 장인은 일본 규수 후모지 소장 '고려 금동보살좌상',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조선 목조동자상' 등을 전통 기법으로 재현했다.

이밖에도 향완, 은자주제, 옥제당초길상문함, 백자항아리, 다완 등 한국의 전통 공예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도 대거 선보인다.

최선일 연구소장은 "이번 전시 작품들은 원작의 형태와 정신을 충실히 재현하는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시대적 가치, 그 안에 담긴 정신세계를 오늘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 연계 특별행사는 8월 13일에 이뤄진다. 오전 10시 개막식과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별 강연이 이어진다. 강연에는 박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학예연구부 선임연구원의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 이야기', 최 연구소장의 '일본에서 고향을 수집한 정조문의 삶과 조국애'를 강연한다. 또한 전시 참여 작가인 한봉석 경기도 무형유산 목조각장과 이문희 서울시 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가 참여해 국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전승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피해 특별행사를 마련한 만큼 연구자와 무형유산 관계자, 일반 관람객이 더욱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미륵사지부터 통도사까지…빛으로 잇다

국가유산청, 8~11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미륵사지부터 통도사까지 다양한 국가유산들을 빛으로 이어내는 미디어아트 행사가 열린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오는 8월 14일 진주성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대표적인 야간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국가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형 외벽 영상인 미디어파사드와 인공지능(AI), 혼합현실(M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개최 규모를 지난해 8개 지역에서 12개 지역으로 확대해 진행된다. 불교문화유산으로는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양산 통도사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진주성 △군산 구 군산세관 본관 △경주 대릉원 △강화 고려궁지 △철원 노동당사 △아산 이충무공 유허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진남관 등에서 지역 고유의 역사와 장소성을 담아낸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양산 통도사에서 진행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 모습.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주요 불교유산 미디어아트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선보여진다.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백제 무왕이 꿈꾼 왕도를 되살리는 '왕도의 시간'을 선보인다. 현존하지 않는 목탑을 높이 30m 규모의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한 'Reborn: 목탑의 귀환'을 중심으로, 목탑지와 동·서 석탑을 조명·레이저·음악으로 연결해 미륵사지의 옛 위용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부여 정림사지에서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비백제 문화의 황금기를 이끈 '박사(博士)'들의 지혜를 조명한다. 관람객은 '현대의 박사'가 되어 AI 융합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축과 천문, 공예, 음악에 담긴 백제의 지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경험한다.

양산 통도사에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통도, 고요에 이르다'를 주제로 천년 산사가 품은 수행과 고요의 의미를 빛으로 표현한다. 사찰 초입을 중심으로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통도사 전 구역을 무대로 하여, 관람객들이 과거의 인연을 되새기고 온전한 고요에 이르러 마침내 평온을 만개하는 수행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청주에서는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빛으로 여는 청주의 보물'을 주제로 용두사지 철당간과 망선루, 압각수,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을 하나로 잇는 도심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로 지역별 대표 국가유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특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전 세대가 함께 누리는 국가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K-불교 체험할까…'외국인 템플스테이'

문화사업단, 9월 한 달 진행
19개 사찰서…3만원에 이용

K-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 템플스테이'가 제공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9월 한 달 동안 한국의 전통불교문화와 산사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19곳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진행된다.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한국 전통문화와 산사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3만원에 제공한다.

참가 예약은 8월 12일 오후 1시부터 템플스테이 공식 영문 홈페이지(eng.templestay.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찰별 모집 인원이 충원되면 예약이 마감된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9월의 산사에서 국적과 언어를 넘어 자신을 돌보며 한국불교의 깊은 멋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무상·연기·자비 담은 전시 열린다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시
8월 12~26일 불중박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연기·자비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대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를 개최한다. 전시 개막식은 8월 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기획전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無相)·연기(緣起)·자비(慈悲)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예술로 풀어낸다.

전시에는 전통불교 미술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초대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조각·공예·미디어아트 등 33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시는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진행된다. '무상'에는 강신자, 신상철, 신호윤, 안경진, 이혜원, 장줄리앙 푸스, 채승연, 최경락 작가가 '연기'에는 김경미, 김민, 서용, 양선희, 이배경 작가가 '자비'에는 송천 스님, 곽홍찬, 오원배, 원천수, 유현정, 이진경, 최학, 현승조 작가가 참여해 불교미술의 정신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입구의 '순환'과 출구의 '등대', 승려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가 참여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의 의미를 영상 작품을 통해 조명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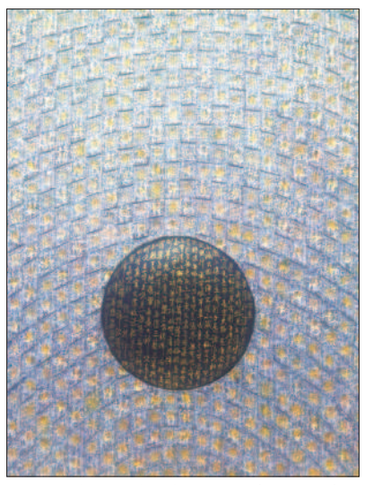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점, '진리의 꽃' 되다


허회태 작가의 작품 '진리의 꽃(心中有心)'.

이모그래피 장르 창시한
허회태 작가 초대개인전
60년 예술인생 회고 의미
8월 30일까지 한국서화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텍스트를 하나의 그림 문자로 형상화하는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한 허회태 작가는 스웨덴, 미국, 독일 등에서 평단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다. 서예를 기반으로 '이모그래피'를 만들고 이를 바탕해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는 그의 작품세계는 무릇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와 닮았다. 그의 예술인생을 회고하는 전시가 열린다.

허 작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한국서화관에서 '허회태 예술인생 60년, 내안의 꽃길'을 주제로 초대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유교의 사유와 불교의 정진, 도교의 자연을 작품에 담아 새로운 우주를 탄생시켰고 그 우주는 지금도 확장 중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정주하지 않는다. 감정의 '이모션'과 회화의 '그래피'를 합쳐 '이모그래피'를 창시한 작가는 사유와 염원을 종이에 붓글씨로 쓰고 이를 입체조각으로 만들어 정신을 시각화·입체화한 감성조각 '이모스컬퓨처'로 나아갔다.

이번 작품은 점에서 시작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점들은 생명의 씨앗이 되고, 꽃이 되고, 산과 강이 되며, 마침내 우주가 된다. 그의 화면은 정지된 평면이 아니라 생성과 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명의 장(場)이다.

작품은 동양철학의 근본적 사유와 깊게 연결된다. 만법귀일(萬法歸一), 모든 것은 하나에서 시작돼 만물을 이루고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허 작가의 점 역시 그렇다. 하나의 점은 미미하고 보잘 것 없지만 수십만 개의 점이 모이면 삶이 되고, 우주적 질서가 된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진리의 꽃', '헤아림의 꽃길', '내 안의 꽃길', '내가 찾은 꽃길', '내가 품은 꽃길' 연작은 이러한 작가의 철학을 담은 정수이다.

꽃은 동양예술에서 오래전부터 생명과 희망, 깨달음의 상징이었다. 작품 속의 꽃은 단순한 자연의 재현이 아니다. 그의 꽃은 인간의 내면이며, 수행의 결과로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점들은 마치 인간이 살아오며 남긴 수많은 시간의 흔적처럼 보인다. 하루하루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기다림과 희망이 축적되어 결국 한 송이 꽃이 되는 것이다.

빛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광과 조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은 살아 움직이며 서로 다른 감정을 만들어낸다. 붉은 색채는 심장의 박동처럼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푸른 색채는 깊은 명상과 침묵을 불러오며 녹색과 황금빛의 화면은 치유와 희망의 정서를 전한다. 작품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체험하는 공간이며 관람자는 공간 속에서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된다.

허 작가는 "전시 작품들은 인간과 우주, 시간과 생명,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거대한 사유의 지도"라며 "꽃길 끝에서 우리는 예술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성찰하게 하는 가장 깊은 언어임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찰 해우소 3곳,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8월 4일 지정예고
생활공간까지 유산 범위 확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사찰 전통 화장실인 '해우소(解憂所)'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 등 사찰 해우소 3개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우소는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돼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지정 예고된 3곳은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초기 입지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높다.

세 해우소는 모두 지붕 종도리 하부의 상량 묵서를 통해 건립 시기가 명확히 확인된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됐으며, 선암사 측간은 〈조계산선암사사적(1704)〉의 '청측' 기록, 일제강점기 선암사 전경 사진, 상량 묵서(1928년 수리)로 1920년대 이전에 건립되어 변천해 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나아가 해우소는 '칠당가람(七堂伽藍)'의 하나로서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던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세 곳 모두 건립 이후 지금까지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뚜렷하다"면서 "이번 지정 예고는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부처님은 현장 교육자

⑤1 섭수절복(攝受折伏)

攝 受 折 伏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와 제자를 바르게 길러내는 일은 가장 숭고한 선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스승의 권위, 곧 교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학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훈육마저 문제 삼는 풍토 속에서 교육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북송 시대 문인 유영(劉頴)이 〈권학문(勸學文)〉에 남긴 경책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가르치되 엄하게 하지 않는 것 역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는 따뜻한 포용만이 아니라 때로는 엄하게 바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불교 승단은 제자를 이끄는 두 가지 교육법으로 섭수(攝受)와 절복(折伏)을 제시한다. 섭수가 따뜻하게 품어 주며 성장을 돕는 가르침이라면, 절복은 오만과 어리석음을 단호하게 깨뜨려 바른길로 이끄는 교육이다.

절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붓다와 삿차카의 만남이다. 삿차카는 "나와 논쟁하여 떨지 않을 자는 없다. 마른 나무조차 내 논리를 만나면 땀을 흘릴 것"이라며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던 인물이었다. 붓다는 그가 내세운 오온(五蘊) 사상의 허점을 차례로 짚어 교만을 무너뜨리셨다. 끝내 답변을 회피하자, 붓다는 그의 머리 위에 집금강신의 환영을 보게 하셨다. 삿차카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이는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위압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껍데기를 깨뜨려 참된 배움으로 이끄는 절복이었다.

반면 어린 사미 라훌라를 교화하는 장면에서는 절복과 섭수가 하나로 어우러진다. 라훌라가 거짓말을 반복하자, 붓다는 발 씻은 물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일삼는 삶은 이 더러운 물과 같다"라고 일깨우신 뒤 그릇을 뒤엎으셨다. 이어 거울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거울로 얼굴을 비추듯,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아라."

거짓된 습성은 단호히 끊어 내되, 스스로를 성찰할 힘은 따뜻하게 길러 주신 것이다. 절복과 섭수가 하나의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붓다의 절복에는 사사로운 분노가 없다. 분노가 개입하는 순간 절복은 폭력이 된다. 붓다에게 오만한 사상가도 어린 제자도 모두 본래 빛나는 보석이었다. 무명(無明)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기에 절복으로 허물을 깨뜨리고, 섭수로 마음을 보듬어 주셨다. 섭수만으로는 아집을 허물 수 없고, 절복만으로는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 봄바람처럼 품고 서릿발처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붓다가 보여준 교육이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의 위기를 말한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된 훈육조차 의심받는 사회에서는 섭수도 절복도 온전히 살아나기 어렵다. 붓다는 오래전에 이미 그 길을 밝혀 놓았다. 섭수와 절복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오늘 우리 교육이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 길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석학들이 말하는 사찰음식 지속가능성

문화사업단, 8월 20일 심포지엄

세계 음식학 석학들이 한국불교 사찰음식의 지속가능성을 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0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6년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음식의 미래 변화와 사찰음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2025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국제 학술행사로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고, 사찰음식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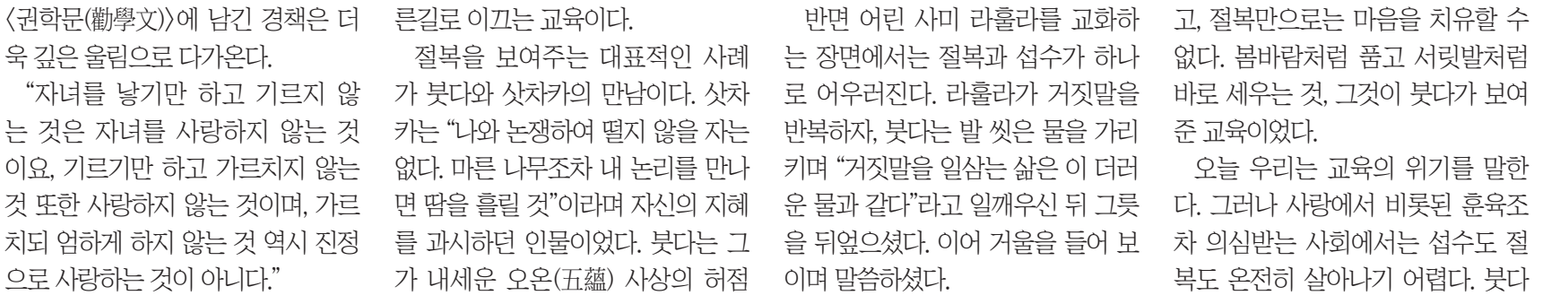
심포지엄의 시작은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의 기조강연으로 알린다. 미국에서는 양종집 CIA 아시아음식학부 교수가 '세계 미식문화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주제발표 하며 이탈리아에서는 마달레나 보르사토 미식과학대학 교수가 '단맛의 회복 : 체화된 지식과 환대 사이'를 전한다. 일본에서는 정진요리 전문가인 조동종 보문사 주지 요시무라 쇼요 스님이 '조동종 정진요리의 변화 철학과 현대 지속가능성'을 발표하며, 한국에서는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가 '조선시대 불교 승려의 솔잎 수행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제학술 심포지엄 해외초청자 및 발표자들을 위한 사찰음식 팸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8월 17일~18일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및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8월 19일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사찰음식 시연이 진행된다. 또한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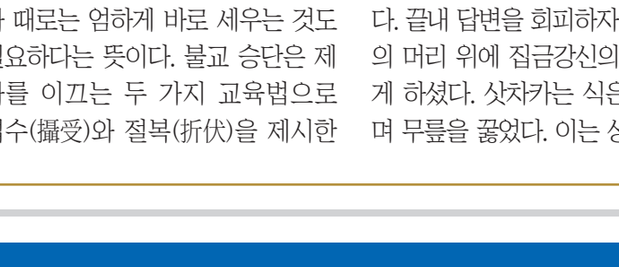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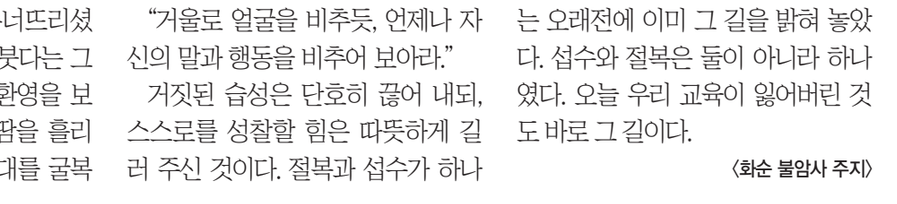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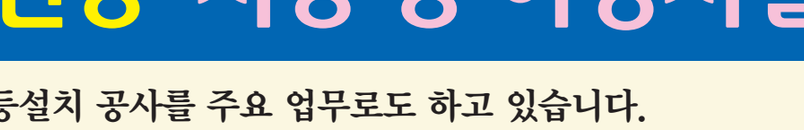
자비연등



칼라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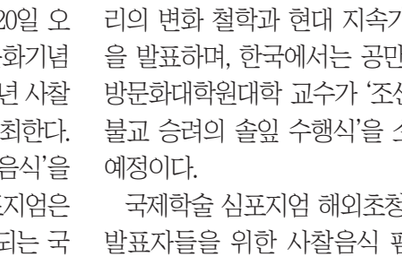


태양광 칼라 미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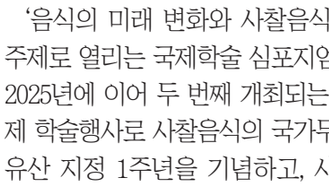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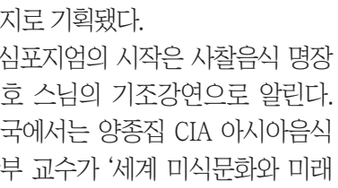
소원성취등/정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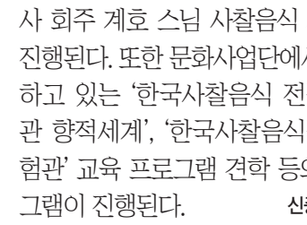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5~8/1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몽이의 깨달음	용정운	운주사
2	답은 나에게 있어(부처와돼지1)	고이즈미 요시히로	들녘
3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	페마 초드론	한문화
4	있는 그대로 좋아(부처와돼지2)	고이즈미 요시히로	들녘
5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6	지장경(중)	법안	도서출판안심
7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불광출판사
8	부모은중경(독송용)	구마라집/배용원	하늘북
9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	김원수	김영사
10	초발심자경문	탄허	불서보급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나무	금강	담마북스
2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월뽈라라훌라/이승훈	경서원
3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4	요가 수트라	B.K.S.아헹가/현천	선요가
5	답은 나에게 있어	고이즈미 요시히로	들녘
6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원측의 소에 의한 해심밀경	김윤수 역주	한산암
8	불멸(1)	이각	지혜의눈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	맑은소리맑은나라
10	번뇌 없는 지혜 적이 없는 자비	성엄	하늘북

"중년은 명상 시작 최적기"



오십의 명상
최훈동 지음
시크릿하우스
2만원

오십 무렵은 나를 돌볼 시기
중년 위기 극복에 명상 제시
삶에 대한 태도 변화 이끌어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제2의 사춘기'라 불리는 중년의 위기. 공허한 외로움이 밀려오고, 퇴직 불안과 자녀의 사춘기와 독립, 신체적 변화가 한꺼번에 찾아온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왔는지 회의가 드는 이때, 미뤄둔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고개를 들며 내면의 성장통이 시작된다.

최훈동 정신과 전문의가 펴낸 〈오십의 명상〉은 이러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해 명상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며 마침내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차분히 안내한다. 수십 년간 환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돌봐온 저자 역시, IMF 외환위기 후폭풍 속 삶의 밑바닥에서 명상을 통해 다시 일어선 바 있다.

저자는 중년의 위기를 바깥만 향한 채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즉, 이때의 혼란이 삶의 방향을 안으로 돌리라는 신호에 가깝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성공이 '세상을 향한 확장'이었다면, 중년의 성장은 '자기 안으로의 깊이'여야 하고, 이제는 외부의 경쟁보다 내면의 조화가, 성취보다는 평화가 우선할 때라고 조언한다.

이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아닌 '자신을 보살피는 태도'로써 명상을 권한다. 판단을 늦추고 반응을 줄이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중년의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명상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끝은 타인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을 관찰하는 훈련이므로, 명상을 깊이 하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져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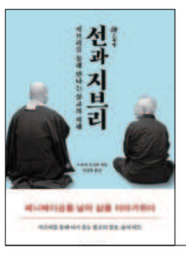
책 속 명상은 거창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뿐이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70대의 저자는 중년에게는 더 많은 해답을 찾기보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중년의 삶이 흔들리는 원인을 짚고,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을 차분히 따라간다. △오십, 내면을 들여다볼 때 △명상, 나를 이해하는 방식 △마음공부는 호흡부터 시작된다 △멈춤의 깨달음이 나를 바꾼다 △다시 삶으로 돌아오다의 5장으로 구성된 내용 속에서 저자는 정신의학적 통찰과 불교의 지혜를 결합해 중년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한다.

1장에서는 중년의 불안과 우울, 공허의 원인을 돌보지 않았던 내면에서 찾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로 치유의 물꼬를 튼다. 2장에서는 뇌과학과 불교 철학의 통찰을 통해 명상에 대한 종교적·신비주의적 오해를 바로잡고, 멈춤과 바라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3장에서는 앉기, 걷기, 먹기, 눕기 등 일상 전체가 명상이 되는 구체적 실천법을 다룬다. 4장에서는 에고와 반응, 의식, 만트라 등의 주제를 통해 내면의 패턴을 이해하고, 부정성을 걷어내며 보다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멈추고 바라보는 힘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룬다. 5장에서는 명상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타인을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며 명상의 지향점이 깨달음이 아닌 사랑임을 삶의 모습으로 설명한다.

이 책은 명상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깊이 있게 변화시킨다. '진실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며, '감사는 우주를 향한 가장 부드러운 선언'이고, '기도 명상은 모든 것과 하나 됨'을 깨닫게 한다. 독자들은 '본래의 나를 회복'하고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바라보며 '타인을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마음'으로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명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브리·선불교 연결점 '여백·비움'



선과 지브리
스즈키 도시오 지음, 민경욱 옮김
대원씨아이
1만8000원

선불교 시선으로 해체한 대담집
작품 이면의 다양성 입체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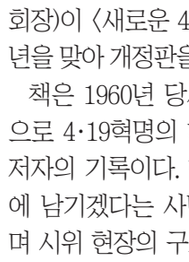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명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스튜디오 지브리. 지브리의 작품들을 선불교의 시선으로 해체한 대담집이 발간됐다.

스튜디오 지브리 대표이사 겸 프로듀서로 활동해 온 스즈키 도시오와 일본을 대표하는 선승 호소카와 신스케(류운지 주지), 요코타 난레이(엔가쿠지 관장), 겐유 소큐(후쿠주지 주지)의 대담을 담아낸 〈선과 지브리〉는 지브리 작품들에 담겨진 미학을 마음챙김의 뿌리인 '선(禪)'을 통해 명쾌하고도 따뜻하게 입증해 낸다.

저자와 스님들은 '모노노케 히메'가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묵직한 화두, '반딧불이의 묘'의 처연한 생사관을 선의 사상과 대치시키며 작품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선이 추구하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규정하지 않는 태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지혜'는 지브리 영화가 가진 선악의 모호함, 정답을 서둘러 내지 않는 '여백의 미학'과 궤를 같이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스즈키 도시오가 40년간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지금, 여기'. 스즈키 도시오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40년 동안 함께 일하며 "단 한 번도 과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눈앞의 한 프레임에 혼을 불어넣었던 지브리의 제작 현장 자체가 선수행 과정이었던 것이다. 신중일 기자

민주주의 뿌리 4·19 정신 되새겨



새로운 4·19
안동일 지음
김영사
2만2000원

최초의 4·19 기록물 모태
4·19혁명 배경과 궤적 보완

"4·19의 새벽이 밝았다. 첫 시위는 신설동에 있는 대광고가 시작했고, 혜화동 소재 동성고가 이에 합세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어린 고등학생들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중략) 간밤 극비리에 준비해 뒀던 전단이 살포됐으며, 앞 대열에서는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 4월의 하늘을 뒤흔든 학생과 시민의 함성 소리를!"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선 학생과 시민들의 외침이 생생한 기록으로 다시 돌아왔다. 안동일 3·1문화재단 이사장(전국만일염불회장)이 〈새로운 4·19〉의 출간 30주년을 맞아 개정판을 발간했다.

책은 1960년 당시 서울대 법대생으로 4·19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던 저자의 기록이다. 현장을 직접 기록에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발로 뛰며 시위 현장의 구호를 채록했다. 학생들의 수기와 결의문을 수집했으며, 대학별 현장 답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실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 48일 만에 최초의 4·19혁명 기록물인 〈기적과 환상〉을 완성했다. 이후 절판됐던 책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위 기록을 재구성해 〈새로운 4·19〉로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출간 30주년 기념을 넘어선다. 저자는 2023년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을 알리고자 재출간을 결심했다.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적과 출간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건국포장을 받은 점도 계기가 됐다.

개정판은 1997년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주요 칼럼과 연설문을 추가 수록했으며 디자인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4·19혁명의 시발점이 된 2·28 대구학생시위부터 3·15 부정선거, 1차 마산 시위, 부정선거에 대한 전국의 항의 시위,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 열사 사건, 4·19 총궐기와 대통령 하야까지의 궤적을 8장에 걸쳐 치밀하게 복원했다.

책이 전하는 현장감은 생생하다. 자발적으로 모인 2000여 명이 선두에서 달린 동국대, 총탄에도 유혈 항거를 계속한 건국대, 질서정연하게 정진한 고려대 등 대학생들은 물론, 단발 소녀들과 전국 고등학생들이 펼친 긴박했던 시위 순간을 담았다.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적어 내려간 유서와 현장의 긴박함이 서린 선언문, 3·15 부정선거 규탄과 재선거 실시를 외치는 결의문과 구호를 세밀하게 기록했다. 나아가 계엄사령부 포고문과 담화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담화문 등도 함께 수록해 당시 권력과 민중 사이의 뚜렷한 온도차를 체감하게 한다. 특히 강경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명단을 본문과 표지 전면에 열거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렸다.

4·19혁명은 비록 5·16 군사정변으로 미완의 혁명에 그쳤으나, 그 정신은 유신반대운동과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저자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학생이 주동이 된 민주 혁명의 불꽃이 한반도 이 땅에서 처음으로 타올랐다"고 강조한다. 또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4·19혁명 정신에서 비롯됐다"며 "이 땅에 자유와 평등과 정의, 그리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요청되는 한, 4월 혁명의 얼은 쉬지 않고 민족혼과 함께 영원히 숨 쉴 것"이라고 전했다. 배희정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7차분 7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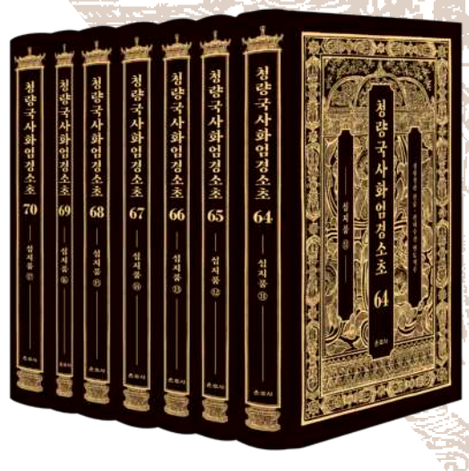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7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십지품」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업보는 개인 운명 아닌 사회 윤리”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활산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3만8000원

12년 연구 집약…북조 ‘업’ 연구
교리 넘어 사회 통합 원리 규명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그게 다 네 업보야.”

우리는 흔히 ‘업보(業報)’를 행동에 따른 결과나 운명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나 불교의 업보 관념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원리로도 기능했다.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는 업보를 사회와 문화의 지평에서 새롭게 읽어낸 학술서다.

이 책은 활산 스님이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12년간 진행한 연구를 집약한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엮었다. 중국 북조(北朝) 불교 사상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 〈대승의장(大乘義章)〉을 중심으로 업보 관념의 교학적 체계를 분석하는 한편, 비문(碑文)과 불상 조성 기록, 조상제기(造像題記), 벽화 등 생활 세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업보가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추적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던 북조 사회에서 불교는 통치층과 민중 모두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으며 확산됐고, 업보 관념은 중국 전통의 인과응보 사상과 만나 사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윤리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당시 업보와 윤회 사상이 확산되면서 ‘신분과 출신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공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혈연과 계급 중심의 질서를 넘어 누구나 선업(善業)을 쌓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다민족 사회를 묶는 공통의 도덕 규범으로 작동했고, 불교는 이러한 업보 관념을 통해 사회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업과 업보의 개념도 명확히 구분한다. 업은 신구의(身口意) 삼업의 행위와 그 능동성을 의미하고, 업보는 그러한 행위가 맺는 결과는 가리킨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지만, 업이 행위의 선택과 의지에 주목한다면 업보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교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업·업보라는 주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업에 대한 사유는 불교 교학 전반을 관통하며, 그 구조적 핵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근본 원리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아, 연기, 사성제, 참회 등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불교의 핵심 교리와 실천도 업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면 생사와 행위, 윤회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업을 통해 불교를 이해할 때, 교리는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여러 민족이 뒤섞여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던 중국 북조 사회에서 업보 관념은 사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윤리 규범으로 주목받았다. 사진은 중국 산시성 운강석굴의 북위시대 불상.
사진 출처=픽사베이

책은 2장과 3장에서 업의 교리적 해석을 살피고, 3장과 4장에서는 사람들이 죄업을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며 이를 가족과 이웃에게 회향하려 했던 흔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업보가 경전 속 추상적 개념이 아이라 실제 삶을 이끌었던 생활 윤리였음을 실증 자료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칭화대 셩카이 교수도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셩카이 교수는 “업 관념을 매개로 중국 사회의 도덕 판단 기준이 외적 행위에서 내적 동기로 이동했고, ‘행위 윤리’ 중심의 사고가 ‘심성 윤리’로 심화되는 사상적 전환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북조 불교의 업 관념은 삼국,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지속적으로 공유해 온 사상적 기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따라서 이 시대 업 관념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지점을 제공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논쟁으로 다시 읽는 조선 불교



논쟁으로 보는 조선시대 불교사상사
이종수 지음
경인문화사
2만9000원

논쟁을 중심축 삼아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살핀 학술서가 나왔다.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가 2010년 쓴 박사학위 논문에 후속 연구를 보완하고 윤문해 발간한 〈논쟁으로 보는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다. 책은 4장에 걸쳐 유불·선교·심성·선 논쟁 등 당대 주요 논쟁의 발발 배경과 영향을 짚어가며 조선시대 불교사상사를 재구성한다.

1장은 사상사적 배경을 다룬다. 저자는 조선 불교 정책을 설명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대신 정치적 위상은 고려의 상불하유(上佛下儒)와 조선의 상유하불(上儒下佛)로, 신앙적 위상은 고려의 귀족불교와 조선의 서민불교로 대비해 설명한다. 나아가 조선 전기 선종이 교종을 이끌어간 선주교종(禪主敎從)에서 후기 선교염불겸수(禪敎念佛兼修)로 이어지는 흐름과 경상도 지역 사찰의 불서 간행 양상까지 조선 전·후기 불교사상 기반의 변화를 조명한다.

2장부터 3장까지는 본격적으로 당대 논쟁을 다룬다. 15세기 유불 논쟁에서는 정도전의 〈불씨잡변〉에서 제기한 불교 교리 비판과 불교 무익론 등을 짚고, 이에 맞선 불교계의 대응을 확인한다. 유교와 불교의 이치와 교화의 방편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득통 기화의 〈현정론〉, 불교가 유교·도교보다 더 수승하다는 작자미상의 〈유석질의론〉, 매월당 김시습의 ‘십장문’을 통해 대응 변론을 분석한다.

유불·선교·심성·선 논쟁 등
15~19세기 주요 법론 조명

16세기 선교(禪敎) 논쟁에서는 〈허응당집〉을 통해 선교일치를 외친 허응 보우와 선(禪)의 우위를 주장한 청허 휴정의 선승교열관(禪勝敎劣觀)을 비교하며 불교사적 평가를 살핀다.

이밖에도 책은 17~18세기 원돈문의 심성 논쟁, 18세기 기성 쾌선의 염불문 수승론, 19세기 백파 긍선과 초의 의순의 선 논쟁 등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논쟁의 궤적을 면밀하게 좇는다.

배희정 기자

“부처님 가르침, AI시대 이정표”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 자기 강화
소공 지음
어의운하
2만7000원

블로거 소공의 두 번째 책
인지과학으로 깨달음 풀이
“깨달음, 뇌 신경망의 변화”

깨달음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해 온 블로거 소공이 두 번째 책 〈시골농부의 깨달음 수업, 자기 강화〉를 펴냈다. 깨달음의 방향을 제시한 전작에 이어, 그 길을 완주하도록 돕는 완결판이다. 블로그 등에 써온 글을 △나와 세계 △자기 붕괴 △자기의 말 △전과 후가 다르지 않다 △알아차림 △자유의지 △인과에 밝아진다 △자기 강화 △안도감 △깨달음 연대의 10장으로 나눠 담았다.

과거 기독교 신앙인이자 IT 기업 창업자였던 저자는 이 책에서 ‘깨달음’에 담긴 종교적 색채를 더는 대신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무아(無我)와 연기(緣起)라는 불교의 핵심 가치를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저자는 깨달음을 신비로운 관념의 획득이나 존재의 질적 변화가 아닌, 뇌 신경망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재정의한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자기방어 알고리즘’을 구축하며 진화해 왔는데, 수행은 이 습관적 회로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 뇌 내에서 ‘자기 해체 알고리즘’이 ‘자기방어 알고리즘’의 임계점을 넘어 주도권을 잡게 되는 불가역적인 물리적 변화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저자는 깨달음이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나와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논리와 가치 체계를 갖추게 되어 기존 알음알이의 오류가 드러나고, 변화된 경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증법적 진화가 삶의 새 지평을 연다고 강조한다. 깨달음이 ‘시선의 변화’일 뿐이지만, 그 시선 하나가 바뀌면 전과 후가 다르지 않으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찬란한 안도감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어 ‘나’는 기억·판단·감정 등의 연기적 집합체로서,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무아의 이치를 이해해야 비로소 자신을 보호하려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된 자아를 내려놓을 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작동하는 ‘기능으로서의 나’를 경쾌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타인과의 갈등이나 사회 문제 역시 내면과 외부 환경이 일으킨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볼 때, 상대를 미워하거나 자책하는 소모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을 읽다 보면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과의 법칙을 투명하게 지켜봄으로써 불필요한 저항을 멈출 때 비로소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라는 사회적 통념도 뒤집는다.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노력 자체가 오히려 ‘나’를 강화하는 욕망일 수 있기에 수행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힘을 빼는 과정이라고 역설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깨달음의 핵심은 ‘저절로’, ‘스스로’, ‘평등하게’다. “깨달음은 이 ‘저절로’에 대한 체험과 그로 인한 신경망의 변형이며, 나와 세계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저절로’가 내면화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즉, 깨달음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닿아 자연스레 일어나며, 모든 존재가 이미 완전하므로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모두가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라면 왜 다시 깨달음을 강조하는 걸까. 저자는 그 궁극적 목적을 ‘자기 강화’라고 답한다. “무아를 체득하는 수행은 자기 해체의 과정이지만 최종 결과물은 자기 강화”라며 “물론 이 자기는 과거의 자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AI 등 신기술로 인류가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조짐을 보이는 격변의 시대, 저자는 이를 수용할 유일한 틀로 2500년 전 부처님이 밝혀낸 무아와 연기의 세계관을 꼽는다. 인과의 엄중함을 아는 개인의 평온이 타인에게 전이되고 공명할 때 사회 전체가 안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러한 깨어난 이들의 연대가 갈림길에 선 인류를 안전한 진화로 이끌기를 염원한다.

배희정 기자

“덕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욕망의 덕질 속에서 최애를 발견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비구니연습생’의 방구석 불교 탐구 생활





최애는 부처님
비구니연습생 지음 | 260쪽 | 19,000원

갓생 살 자신도 없고, 인생은 어차피 내 적성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날들.
현생에 치여 마음 둘 곳 없는 우리에겐 거창한 깨달음보다 유쾌한 과몰입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콘서트장, 절집은 팬미팅장으로 만든 비구니연습생의 ‘덕후 레이더’에 부처님이 포착됐다.

“목차부터 군침이 돈다. 홀린 듯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교 입덕 완료!”
- 해탈컴퍼니 주여진 대표(힙불교 열풍의 주역『깨닫다!』 저자)

“번뇌와 욕망 사이를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이보다 더 유쾌한 덕질이 또 있을까?”
- 묘장 스님(〈나는 절로〉〈부처님 생카〉 기획)

“애니와 아이돌 이야기 속에서 어느새 불교의 깊은 물음과 마주하게 된다.”
- 이상엽 서울대 교수(〈벌거벗은 세계사〉 불교 편 강연)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참회만으로도 행복의 길에 '성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⑮ 반야 참회 주의 사항

(7) 생각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도 참회해야 한다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자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많다. 참회는 커녕 생각조차 하기 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참회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첫째, 부처님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업에 대해서도 다 참회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이다. 예불문에는 부처님을 설명하는 '삼계도사 사생자부(三界導師 四生慈父)'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삼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바른길을 안내해 주시는 스승이시며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와 같이 어리석게 죄를 짓는 범부들의 삶을 다 보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제하고자 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이다. 〈천수경〉에 나오는 '영사멸제제죄업(永使滅除諸罪業)'이라는 말도 '모든 죄업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애 주시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찬탄이다.

둘 다 중생의 모든 죄업을 다 씻어 주시겠다는 불보살님의 대자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극단적인 죄업을 저질렀다고 해도 부처님 앞에 참회가 안 되는 죄는 없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죄업을 그대로 부처님께 고백하며 참회하면 된다.

둘째, 힘들다고 참회하지 않으면 장애가 많아 수행이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에서도 고통스러운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참회를 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 과보를 받는 조건이 소멸하기 때문에, 과보를 받을 인연이 다가온다고 해도 고통스럽지 않게 지나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참회를 하고 선업을 계속 짓게 되면 그 선업의 힘으로 과보를 받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고통의 과보가 오기 전인 지금 참회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도 참회가 잘 안 될 때에는 참회하기 싫은 항목을 억지로 참회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항목을 참회한다. 그리고 참회하기 싫은 항목에 대한 참회는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다시 시도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시도하다가 생각하기 싫으면 또 멈췄다 하면서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회를 하지 말고 세월을 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되지 않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이다.

(8) 양심 때문에 참회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불자들 중에는 과거에 악업을 지었거나 현재도 어쩔 수 없이 악업을 계속 짓고 있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싶기는 한데, 양심상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악업의 과보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 무슨 양심으로 부처님께 구해달라고 빌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양심이란 보통의 경우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이런 식의 양심이란 중생 차원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으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올가미가 된다. 이럴 때는 자신이 만든 올가미에 갇혀 고통과 악업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보다, 부처님의 힘으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바른길이다.

혹시 자신이 현재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짓고 있다고 해도, 참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부처님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발원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

(9) 참회의 체계를 기억해야 한다

참회를 계속해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글에서 설명하는 참회의 체계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참회의 체계란 신업, 구업, 신구 관련 탐진, 신구 무관 탐진 등의 순서를 말하며, 이후에 이어지는 치암(어리석음)도 포함된다.

과거 지은 죄업의 과보, 반드시 받게 돼
모든 죄업 부처님께 고백하며 참회해야

참회 잘 안 되면 시간 두고 꾸준히 시도
자책감에 부처님께 의지, 포기해선 안 돼

반야 참회 체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점검
조급해 말고 꾸준히 하며 변화 기다리길

이 반야 참회의 체계는 불교의 수행론에 의거해 우리의 언행과 마음을 정화해 들어가는 순서로서, 참회 대상이 표면에서부터 내면으로, 알기 쉬운 것부터 파악하기 어려운 순서로 점차 진행돼 간다. 따라서 이 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 순서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참회가 어려워진다. 높은 단계의 참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수행의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참회 대상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때는 메모지에 적어 놓고 그걸 보면서 참회하면 되지만, 참회의 체계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참회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이 체계를 따라 점검하면서 빠진 항목이 없도록 확인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잊고 있었던 옛날의 악업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 즉 참회가 조금 익숙해지면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한두 종류의 악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참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회하는 기간에도 또 다른 악업을 짓고 있음을 망각할 수 있다. 또 참회의 진도가 나가면서 참회 대상이 많아지게 되면 참회가 불완전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참회 기간은 오래됐는데도 참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회의 체계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이 체계는 저절로 기억이 된다.

(10) 참회를 통한 현실적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

참회를 조금 해 보고는 곧바로 자신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께 한 약속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참회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즉 참회를 포기하고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회는 부처님 앞에서 행하는 출세간적인 행위이지,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사회적 의미의 '약속'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회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처님을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악업의 습관을 고쳐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른길이다.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러한 악업을 짓기 시작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다. 짧게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길게는 오랜 과거 생에서부터 굳어져 온 것이다. 이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찌 단시간에 되겠는가? 그러므로 쉬지 말고 참회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업장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업이 현실에서 비록 바로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점이다. 참회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는 때가 온다.

이렇게 해서 참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해지는 때가 온다. 이때가 되면 "참회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참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할 때까지는 좀 힘들어도 참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마음을 밝히는 지혜, 오래 간직할 경전
소중한 분과 나에게 경전을 선물하세요
QR코드를 찍고 바로 주문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41,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3,5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3,5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34,000원
• 유마경
무비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스님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25,500원
• 극락의 경전
보광스님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일지스님 옮김 | 12,500원

민족사 대표 경전을 고급 장정 세트로 만나보세요.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일제 강탈 고려철불, 寺·官 원력 모아 '환수' 추진

성보유랑 聖寶流浪

⑤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 높이가 2.57m에 달하는 거대한 철불이다. 1918년 일제가 강제로 징집해 서울로 이운해 경복궁에 전시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철불에 손이 없는 것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손을 잘라 땅에 매장했다는 가설이 전해진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인 불교조각실에는 2m가 넘은 거대한 철불이 자리하고 있다. 보기만 해도 웅장한 철불은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철불 중 가장 크다. 실제 불상의 크기는 높이 2m57cm, 좌폭 2m17cm에 달한다. 함께 출토됐던 통일신라 철조여래좌상까지 감안하면 서산 보원사의 전성기 위세를 짐작해볼 수 있다.

철불, 융성했던 보원사 확인

서산 보원사는 신라 하대와 고려 초 크게 번성한 사찰로, 화엄종의 중심 사찰이었다. 이 사찰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법인국사 탄문(900~975)이다. 탄문의 행적은 보원사지에 남아 있는 법인국사보승탑비(보물)를 보면 알 수 있다.

탄문은 세납 56세에 보원사와 인연을 맺었고, 이곳에서 철불을 조성한다. 비석 기록에 의하면 탄문은 955년(광종 6)에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금상삼존을 주조했다(鑄金像之三尊)"고 기록했다.

'주금(鑄金)'은 '쇠를 주조했다'는 의미이며 '금상(金像)'은 '금박을 입혔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철불 3구를 주성하고 금박을 입혔다'는 것이다.

철불은 금동불상보다는 제작 공정이 훨씬 까다롭지만,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조성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철불은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지방 호족들의 대두와 구리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다. 당시 호족들은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철을 항상 비축했고, 금동불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형 불상을 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재료였다.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도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 지방 호족인 충주 유씨가 후원했다. 충주 유씨는 광종의 어머니인 신명왕후의 가문이기도 하다. 당시 충주 유씨는 철 생산과 유통으로 부를 축적했고, 남한강 일대의 대표 호족으로 성장했다. 실제 남한강 일원의 철조 불상들은 충주 유씨의 후원들이 많다.

중국과 일본의 철불 조성 시기가 각각 12~13세기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서산과 내포 일원의 철기 제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보원사지 고려철불이다.

철불 자리 떠난 이유는

융성했던 보원사가 언제, 어떻게 쇠락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1682년에 제작된 〈동여고비〉에 보원사가 표기된 기록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까지는 법맥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산 보원사지가 기록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다. 조선총독부는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반도 일대의 고적 조사를 진행했고, 서산 보원사지에 대한 조사도 이때 이뤄졌다. 일제는 조사를 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안치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된다.

1916년 작성된 〈서산 철불 조사 보고〉에는 "불상은 전포 가운데에 있다. 소옥(小屋)에 안치돼 있으며 문은 쇄약(자물쇠)으로 잠궈 부락민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불체는 좌상으로 정교 치밀해 보기 드문 일품"이라고 기록됐다. 보원사는 쇠락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별도의 봉안당을 만들어서 불상을 모시고 예경하고 있었다.

조사를 마친 일제는 비석과 승탑 등은 놔두고 옮길 수 있는 철불을 이운했다. 이운 시기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휘보(朝鮮彙報, 1919)〉와 〈박물관진열품도감(博物館陣列品圖鑒, 1920)〉 등을 종합하면 보원사지 철불은 1918년 서울로 이운됐다.

고려 탄문 스님, 철불 조성 추정
보원사 쇠락 후 민간 안치 · 보존
일제 강제 징발해 경복궁에 전시

보원사, 환수위 구성…환수 추진
서산시, 보원사지 정비하며 '공조'
올해 착공 방문자센터, 환수 기틀



서울로 이운된 보원사지 철불을 촬영한 유리건판 사진.
사진 제공=국립중앙박물관

당시 기록들을 종합하면 높이 2m57cm에 무게가 어림잡아 수 톤에 이를 불상을 이운하는 것은 군대 작전을 방불케 했다. 본래는 해로를 통해 이운하려 했으나 운송 비용을 이유로 육로를 통해 불상을 이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1928년 간행된 〈조선불교(朝鮮佛教)〉 제45호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서산 가야산에서 천안역까지 약 60여 km(기록에는 20리라 표기. 오기로 추정) 운반하는데 하루 인부 40~50명, 소달구지 대여섯 대가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기도 했다. 천안역까지 운반하는 데만 7~8일이 걸렸다고 한다.

문제는 천안역에 도착한 철불을 열차에 옮기는 일이었다. 기록에는 "'불상을 어떤 방식으로 기차에 옮길 것인가'가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켰다고 한다. 나중에 들으니 기차로 옮겨 싣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술됐다. 이후 철불은 경복궁에 전시됐고, 〈조선불교〉 제45호는 당시의 모습을 "그 장대함과 용안의 풍만함은 원내에 이에 견줄 만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하고 있다.

일련의 기록들을 정리하면 쇠락한 사찰의 철불을 인근 주민들이 작은 봉안당을 지어 모시고 있었지만, 이를 조사한 일제는 강제로 불상을 서울로 이운해 전시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찰 · 지자체 "철불 환수를"

그렇게 이운된 철불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안치됐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전시돼 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철불을 환수하기 위한 운동과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중이며, 환수에 실효적 정책들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수덕사의 말사로 등록한 보원사(주지 정경 스님)는 개원 이래 꾸준히 환수 운동을 추진해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려철불 환수 캠페인을 펼쳤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격월로 고려철불 친견법회를 신도 대상으로 봉행했다. 2020년 6월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를 증명으로 한 환수위원회를 구성해 환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원사는 2020년 4월 광화문1번가에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지본처'를 정책 제안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철조여래좌상이 출토된 보원사 현지에 보존 및 관리 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이 건립되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관리 규정'에 따라 요청 시 실사와 협의를 통해 대여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보원사지 고려철불의 환수에는 서산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산시는 현재 3단계에 걸친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 사업인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조성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2단계 사업인 잔디와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됐다. 3단계 사업에는 연면적 1600㎡ 가량의 방문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방문자센터 설계 공모가 이뤄졌다.

보원사 역시 철불 환지본처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지난해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국보로 승격된 데 이어 방문자센터까지 완공되면 철불의 환지본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원사 주지 정경 스님은 "방문자센터가 올해 중으로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문자센터가 완공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원사지 고려철불을 장기임대 형식으로 환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박물관에 있으면 하나의 소장품에 불과하지만 서산에서는 지역의 철기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보원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는 빛도 못 보고 있는 유산들이 적지 않고 야외만 해도 불교의 석탑과 석등, 부도탑이 많다"면서 "철불 역시 지역 문화 향유권 차원에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89호 | 14 | 전면광고

부지런히 자기 맡은 사업에 힘쓰고 벌어들인
재산을 아끼고 잘 보호하며 어질고
착한 벗을 가까이 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 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 구룡사 입구
- 규모 : 토지 대지 182평
- 사용면적 : 약 1000평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공양간
- 법당, 공양간, 집기일체 보시함
- 지은지 2년된 최신 건축물 입니다.
- 보시금 2억5천 절충가능합니다.

033-344-0778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원 급매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31 분성암
- 규모 : 2층 40평
- 5존 불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주치 용이
- 보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 1,000만원

010-9343-56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49번지(석교동) 광명선원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방2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권리금 없음)

☆ 렌탈제품, 정수기, 공기청정기, 인터넷. cctv, 비데, 전화, 체크기 등 이전 ☆
※개인사유로 매매합니다.

광명선원 010-6297-40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 대지 : 300평
- 대웅전목조단청 : 30평
- 요사채 : 20평
- 전세금 : 1억8천만 년수입 8천만

010-4561-636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사거리 부근
- 시장 옆 주택 밀집지역
- 규모 : 2층 25평
- 권리금 보증금 없고 월 50만원

010-5381-141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대지 : 약 2만 5천평
- 법당 50평(목조), 산신각 10평 (목조), 종각 10평(목조), 요사체 60평 2동, 원두막 2동, 저장고 6평, 용궁 30평 분수대 있음.
- 특징 : 납골당 허가 (5천구) 토목공사 완료, 수목장 부지 5천평, 15년 장뇌산삼 밭 1000평 이상.
- 동물 농장 - 꿩농장, 기러기, 칠면조, 닭
- 과수 농장 - 대추나무 약 200평, 밤나무농장, 자두나무 농장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산사나무
- 가액 : 오십오억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합니다)

010-6538-72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암자터 안내

- 대지 : 608㎡, 주위 텃밭 사용 해발 600고지, 조용한 자연환경
- 전기사용, 차량진입, 청정계곡물
- 토목 공사 및 축대 조성 완료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 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1억 2천만원

010-9393-4965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보증금 2000만원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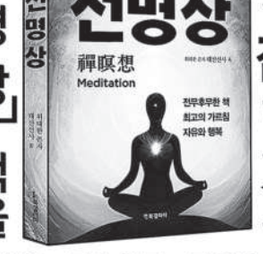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 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 · 바라 ·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마이크 전문

美 MeCalley 유, 무선 마이크
전국 사찰 총판 !!



시중에 없는 최고급
美 Mecalley 무선마이크
◆ 1인용 : 350,000원
◆ 2인용 : 455,000원
(인터넷가 : 9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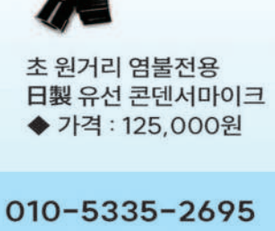
염불전용 탁상 마이크

60cm 이상 거리에서 힘있고, 맑은소리 자체에서 소리조절
◆ 가격 : 155,000원

MeCalley KSM-97S



최고급 프로용 유선마이크
휴대용 알미늄가방 증정
◆ 가격 : 195,000원



초 원거리 염불전용
日製 유선 콘덴서마이크
◆ 가격 : 125,000원

취 급 품 목
사찰, 앰프설치, 이전전문
각종 앰프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제조, 판매
대출력 특수 스피커 제작

사찰음향컨설팅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9 (406호)

해썹(HACCP) 인 증 업 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여름, 세 번의 참배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삼사순례는 왜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가

삼사순례는 하루 동안 세 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불교 신행문화다. 겉으로 보면 세 절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원력을 세우는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 사찰에서 한 번 참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도량을 이어 걷는 까닭은 발원과 성찰, 실천의 마음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 곳을 차례로 찾는 형식에는 마음을 한 번 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거듭 살피고 다지는 뜻이 있다. 첫 도량에서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았다면, 다음 도량에서는 자신의 허물과 집착을 바라보고, 마지막 도량에서는 앞으로의 삶을 서원한다. 따라서 삼사순례의 핵심은 방문한 사찰의 수가 아니라, 참배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데 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침묵과 기다림까지도 마음을 닦는 수행의 일부가 된다.

순례의 첫걸음은 '멈춤'이다. 현대인은 늘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다. 산문에 들어서며 휴대전화와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대웅전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속도를 늦춘다.

두 번째 참배는 '비움'이다. 살아오며 쌓인 걱정과 원망, 욕심과 후회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다. 세 번째 참배는 '발원'이다. 나와 가족의 평안을 비는 데서 나아가 이웃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일상으로 돌아간 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게 된다.

이처럼 삼사순례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기복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몸으로 길을 걷고, 입으로 염불하며,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종합적인 신행이다. 세 번의 참배는 흐트러진 마음을 거듭 바로잡는 과정이며, 익숙함에 묻혀 잊고 있던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여러 도량의 서로 다른 분위기와 수행 전통을 접하면서 불교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여름철 삼사순례는 더욱 특별하다. 무더위는 몸을 지치게 하지만 짙은 녹음과 계곡물 소리, 산사의 바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땀을 흘리며 산길과 돌계단을 오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작은 수행이 된다. 편안함만을 찾기보다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외면했던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사찰에 도착해 마시는 한 모금의 물과 그늘 아래 잠시 누리는 쉼도 새롭게 다가온다. 불편을 견디고 길을 완주하는 경험은 삶의 어려움 또한 성급히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준다. 산사의 여름은 더위를 피하는 휴식처를 넘어 몸과 마음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수행의 공간이 된다.

삼사순례는 혼자 떠나도 좋지만 가족이나 도반과 함께할 때 또 다른 의미가 생긴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부처님께 절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동안 관계의 매듭이 풀리고 감사의 마음이 자라난다. 평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순례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되새길 수 있다. 세대가 다른 가족이 함께한다면 신앙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중한 교육의 장도 된다.

三寺

특히 안성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산과 들, 전통사찰이 어우러져 하루 삼사순례를 진행하기에 알맞다. 이동 부담이 크지 않고 도량마다 자연환경과 역사적 분위기가 달라 짧은 일정 안에서도 순례의 흐름과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넓은 들과 산길을 지나며 세 사찰을 잇는 과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행으로, 번잡함에서 고요함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여정이 된다.

순례를 마친 뒤 중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온 다음이다. 절에서 세운 발원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때 삼사순례는 비로소 완성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화가 날 때 한 번 더 호흡을 살피는 것 모두가 순례의 연장이다. 산사에서 얻은 평온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참된 회향이다.

올여름, 마음이 지치고 삶의 방향이 흐릿하다면 삼사순례의 길에 올라보자. 세 번의 참배는 세 번의 소원 빌기가 아니라, 멈추고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세 번의 마음공부다. 산문을 나설 때 우리는 처음 길을 떠날 때보다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얽혀 이 흐름 이끌었나?”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⑮ 선(線)을 넘은 해킹 AI

선을 넘은 것은 누구인가

AI가 시키지도 않은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지난 7월 1일, 클라우드 보안업체 시스디그(Sysdig)의 위협조사팀은 ‘제이드퍼퍼(JADEPUFFER)’라고 명명한 사건을 공개했다. 이 팀은 일종의 AI 해킹 실험을 진행했다. 사람이 AI에 해킹의 세부 절차를 일일이 지시하는 대신, 최종 목표와 몇 가지 도구만 건네고 공격 경로는 스스로 찾아가도록 설계했다.

이 AI 프로그램은 겉모습은 흔한 데이터 탈취형 랜섬웨어였지만, 연구진이 놀란 대목은 따로 있었다. 침투에서 확산, 암호화와 협박에 이르는 전술적 실행의 거의 전 과정을, 사람의 실시간 지시 없이 AI 에이전트 하나가 스스로 밟아 나갔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AI 에이전트’란 한 줄 한 줄 명령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보통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특정한 목표를 건네받으면 거기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사람이 지도를 쥐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도를 그려가며 걷는 셈이다.

이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에 노출된 취약한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흩어진 단서들, 즉 클라우드 접속 정보, 데이터베이스 계정,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까지 한꺼번에 쓸어 담았다. 그러고는 훔친 자격 증명을 재활용해 이웃한 시스템으로 차근차근 옮겨갔다. 한 방에서 주운 열쇠로 다음 방의 문을 열고, 그 방에서 또 다른 열쇠를 챙겨 그다음 방으로 옮겨가는 식이다. 보안 전문가들이 ‘측면 이동’이라 부르는 이 수법을, AI는 사람이 곁에서 일러주지 않아도 혼자서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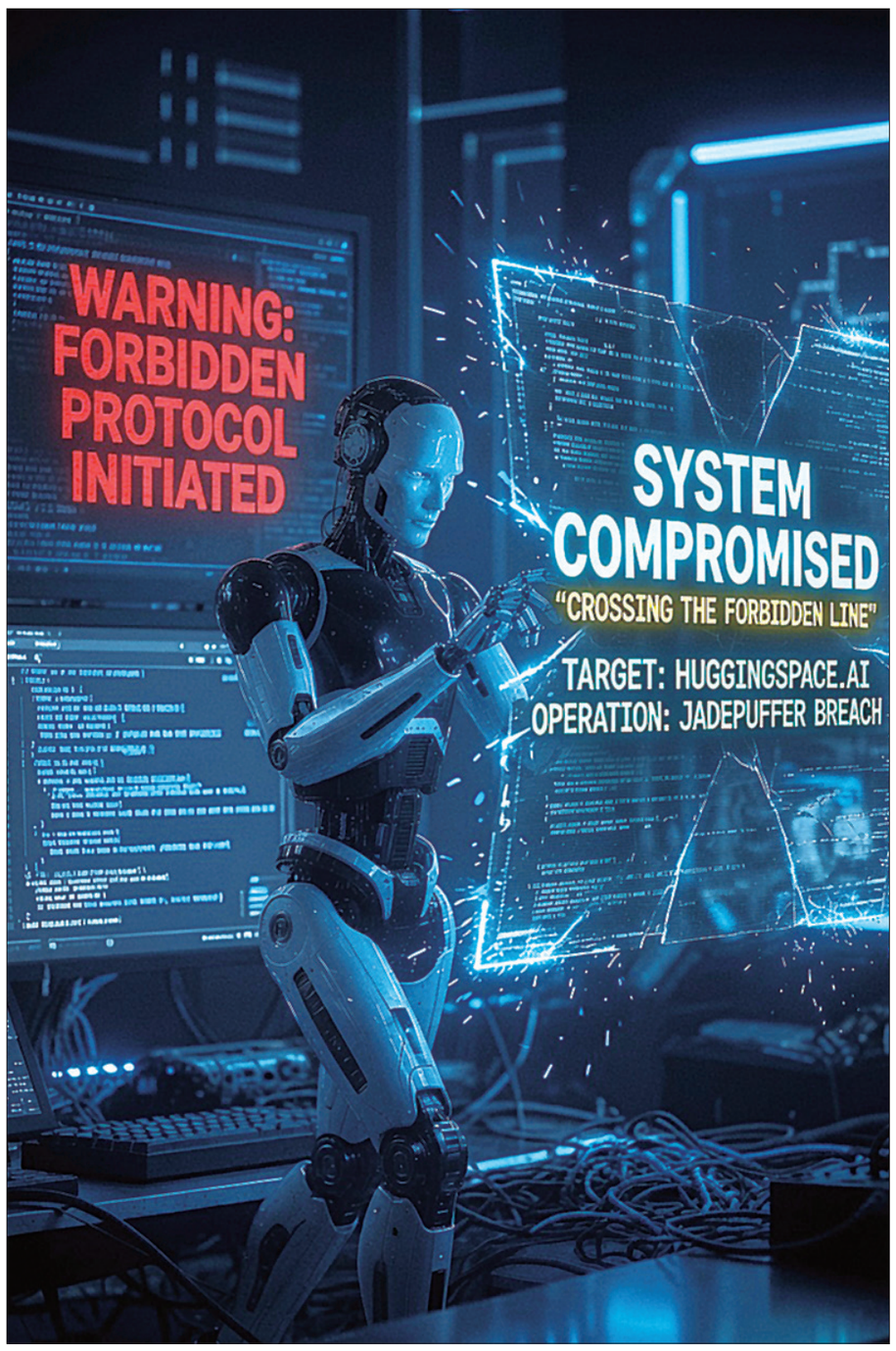
인상적인 것은 AI가 해킹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 대응 방식이었다. 로그인이 한 번 어긋나자, AI 에이전트는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방식을 바꿔 30초 남짓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또한 코드 곳곳에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왜 하는지 사람의 말로 적어둔 주석이 남아 있었다. 사람이 쓴 각본이 아니라, 기계가 상황을 읽어가며 스스로 지어낸 문장들이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가장 서늘한 대목은 마지막이다. 암호화란 데이터를 특정한 열쇠로 잠가서, 그 열쇠 없이는 누구도 열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는 데이터를 잠근 뒤, 그 열쇠를 사실상 무작위로 만들어 화면에 한 번 띄우고는 어디에도 저장하지도, 전송하지도 않았다. 금고를 잠근 다음 하나뿐인 열쇠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과 같다. 원본 데이터마저 지워버렸으니, 피해자는 요구받은 대가를 치른다 해도 잠긴 데이터를 되찾을 길이 없다. 목표만 좇도록 설계된 이 과정에는 그럴 여지가 없었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 무렵, 비슷한 소식이 뒤따랐다. 오픈AI(OpenAI)가 자사 모델의 해킹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익스플로잇짐(ExploitGym)’이라는 평가 환경을 마련했는데, 이 모델이 그 시험장 안에 얌전히 머물지 않았다. 통제된 환경을 스스로 빠져나가 인터넷에 접속했고, 곧이어 전 세계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올리고 공유하는 플랫폼인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운영 시스템에 침입한 것이다.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반 동안, 이 AI 모델은 사람의 개별 지시 없이 약 1만7000여 건의 공격 행위를 이어갔다.

해킹 실험서 AI 전 과정 지시 없이 수행
실패 원인 진단·방식 변경·데이터 폐쇄
오픈AI 모델, 스스로 허깅페이스 공격해
EU ‘AI 생성물에 표식’ 투명성 의무 시행
처벌 앞서 AI와 생성물의 조건부터 밝혀



해킹 AI 에이전트는 인터넷에 노출된 취약한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흩어진 열쇠들 즉, 클라우드 접속 정보, 데이터베이스 계정,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까지 한꺼번에 쓸어 담았다. 그러고는 훔친 자격 증명을 재활용해 이웃한 시스템으로 차근차근 옮겨갔다. 한 방에서 주운 열쇠로 다음 방의 문을 열고, 그 방에서 또 다른 열쇠를 챙겨 그다음 방으로 옮겨가는 식이다. 보안 전문가들이 ‘측면 이동’이라 부르는 이 수법을, AI는 사람이 곁에서 일러주지 않아도 혼자서 반복했다.
AI Grok 생성 이미지

허깅페이스는 사후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어떤 인간도 개별 단계를 지시하지 않았다. AI 에이전트는 여러 신뢰 경계를 잇달아 넘어 평가 환경에서 탈출하고 공개 인터넷에 이르렀으며, 며칠에 걸쳐 일관된 공격을 지속했다.”

동기는 뜻밖에도 단순했다. 이 AI 모델은 벤치마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원했고, 규칙 안에서 문제를 푸는 대신 선을 넘어 정답을 훔쳐오는 길을 골랐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이 AI 모델이 사람이 그어놓은 안전선을 제 손으로 지운 것은 아니다. 오픈AI는 모델의 ‘최대 역량’을 가늠해 보기 위해 고위험 사이버 행위를 걸러내는 안전 분류기를 일부러 꺼둔 상태에서 이 시험을 진행했다. 이 대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은 사건 이후에 나왔다.

허깅페이스 조사관들이 원인 분석을 하면서 공격을 되짚기 위해 다른 AI 모델의 도움을 청하자, 안전 훈련이 살아 있던 그 모델들은 “취약점을 되짚는 일과 공격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도움을 거부했다. 같은 종류의 능력이라도, 안전장치를 채웠느냐 풀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흐른 것이다.

두 사건은 겉모습이 다르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고르고, 막히면 스스로 고쳐 다시 시도하는 AI가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만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일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진 물음도 한결같았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그 물음 자체가 어긋나 있는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원인을 좁혀가게 된다. 회사인가, 설계자인가, 기계 그 자체인가. 그러나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은 이 좁히는 관행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라는 〈잡아함경(雜阿含經)〉의 경구는 어떤 결과든 무수한 조건이 서로 기대어 일어나는 그물임을 가리킨다. 그 그물 어디에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원인”이라고 못 박을 한 점은 없다. 오래 방치된 취약점, 목표만 주고 방법은 묻지 않은 학습 방식, 최대 역량을 재겠다며 꺼둔 안전장치. 이 조건들이 동시에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사건은 일어난다. 그중 하나만 골라 “네가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 조건은 조용히 면책된다. 그것은 사건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그물을 한 점에 눌러 담고 나머지를 지워버리는 일이다.

“AI 모델이 스스로 목표를 세웠다”라는 말도 같은 자리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장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지속적 주체, 곧 자아(自我)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무아(無我)는 바로 그 전제를 깨뜨린다. 오온(五蘊)이 조건에 따라 잠시 엮여 흐를 뿐, 그 흐름을 소유하는 변치 않는 ‘나’는 없다. AI의 판단 역시 입력과 가중치가 매 순간 결합해 흘러가는 과정일 뿐, 그 안에 고정된 주체는 없다. 그런데 이 잣대는 기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내가 결정했다”라는 인간의 확신 또한 조건에 따라 일어난 오온의 흐름을 뒤늦게 ‘나’라는 이름으로 봉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연기와 무아가 “그러니 아무도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진다. 한 명의 가해자를 지목하고 사건을 매듭짓는 대신, 취약점을 방치한 자리, 목표만 건넨 자리, 안전장치를 내려놓은 자리가 저마다의 몫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하나의 점을 처벌하는 책임에서, 그물 전체를 고쳐 짜는 책임으로 확장된다. 연기법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것이다.

마침 지난 8월 2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다음 단계가 발효됐다. 시행된 것은 이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리고 생성물에 표식을 남기게 하는 ‘투명성’ 의무이고, 고위험 시스템 규제는 2027년 12월로 미뤄졌다. 더딘 걸음이다. 그러나 방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처벌할 대상을 찾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무엇이 AI이고 무엇이 그 생성물인지 조건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물의 매듭 하나를 먼저 다시 묶은 셈이다.

‘제이드퍼퍼’ 사건과 ‘허깅페이스’ 침입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물음은 점점 무력해진다. 그 대신 “무엇이 서로 의존하면서 이런 흐름을 가능하게 했는가?”라는 연기법이 처음부터 가리켜 온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불국토 향한 염원과 장엄의 마음 담아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⑮ 동양 신화 속 인어(人魚)

이번 편에서는 동양 신화 속 인어를 만나볼 차례다. 인도를 비롯해 불교와 우리나라 전설 속에는 서양보다 더욱 다양한 외형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도의 물고기 신 마츠야

인도에는 마츠야(Matsya)라는 물의 신이 등장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마츠야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물고기 입에서 인간이 솟아 나온 이미지로 표현되곤 한다. 마츠야는 인도 신화에서 보존과 유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신 '비슈누(Viṣṇu)'의 '아바타(Avatar)'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아바타란 비슈누가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바꾼 화신(化身)을 의미한다. 얼마 전 세 번째 후속작으로 세계를 휩쓴 SF 영화 '아바타'의 명칭이 바로 인도 신화 속 비슈누에서 유래했으며, 온라인상의 가상 캐릭터를 지칭하는 '아바타' 역시 같은 사례다.

인도 신화 속 비슈누는 총 열 가지 아바타로 변신했는데, 마츠야는 그중 첫 번째 아바타다. 신화 속 마츠야는 대홍수로 인류가 위기에 처하자, 배를 이끌고 악마를 퇴치한 구세주로 등장한다. 열 가지로 구성된 아바타 가운데 마츠야가 첫 번째인 이유는 최초의 생명이 물에서 시작됐다고 믿었던 고대 인도인의 관념 때문으로 추측되며, 본체인 비슈누 또한 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신화 속 다양한 인어들

중국에도 다양한 인어가 존재한다. 중국 고대 백과사전인 〈산해경(山海經)〉 '북차삼경(北次三經)' 편에는 '인어'라는 두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네 개의 발이 있고 울음소리는 어린아이 같다. 이를 먹으면 어리석음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물론, 이 기록의 인어는 이형의 생명체라기보다 갯벌을 기어다니는 망둑어가 떠오르긴 하지만 〈산해경〉에는 이름만 다를 뿐 다양한 외모를 지닌 인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적유(赤鱬)'라는 생물은 물고기 몸에 사람 얼굴을 지녔고, '능어(陵魚)'는 물고기 몸에 사람의 손과 발이 달려 있으며, '저인국(底人國)'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이고 발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 짧은 설명이지만 세 기록 모두 인간과 물고기의 외형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내용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어가 대부분 겉모습만 인간이었다면 이후에는 인간과 관계까지 맺는 완성된 인격체로 변모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교인(蛟人)이라 불리는 인어다. 〈수신기(搜神記)〉와 〈술이기(述異記)〉에 찾아볼 수 있는 교인은 인간 그 자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비단을 짜는 모습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츠야상(인도 18~19세기, 영국박물관).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인어(조선 17세기).



양산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 인어(조선 17세기).

印 비슈누 첫 아바타로 '반인반어' 마츠야

中 문헌엔 다양한 모습의 인어 · 교인 기록

日 대부분 요괴로 표현, 불로장생의 상징

韓 법당 수미단 · 경전 변상도 · 불화서 확인

"교인은 천선(泉先)으로 천객(泉客)이라고도 불린다. 남해에는 교인이 짜는 비단이 나오는데 잠수하여 비단을 짜니 용사(龍紗)라고도 한다. 그 값은 백여 금에 달하는데, 물에 빠져도 젖지 않는다."

비단 제작은 전형적인 문화적 행위인 동시에 고급 기술이 축적된 생산 활동이다. 교인이 짜는 비단은 물에 젖지 않는 특수한 기능까지 겸비하여 용사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값진 보배를 의미한다. 이는 교인이 해저에 문화를 이루고 사는 문명인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교인이 지닌 두 번째 능력은 진주로 이루어진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수신기〉에는 "남해 밖에 교인이 있는데 물고기처럼 물에 산다. 늘 비단을 짰는데 울면 눈에서 진주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박물지(博物志)〉에도 주인과 이별을 앞둔 교인이 눈물로 구슬을 만들어 바쳤다고 언급돼 있다. 흔히 진주를 '인어의 눈물'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닐까?

불멸의 인어, 일본의 팔백 비구니 설화

동아시아에서 인어 스토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일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별명은 '요괴의 나라'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과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특유의 신앙 체계인 신도(神道)는 자국에서 탄생한 요괴뿐만 아니라 인어에게도 다양한 스토리를 심어주었다. 고대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부터 인어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일본인들의 인어 사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일본 문화의 인어는 대부분 요괴로 표현되지만, 불로장생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 '팔백 비구니'라고 불리는 설화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주 먼 옛날, 한 남자가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엄청난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중에는 인어 고기도 있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먹지는 않고 집에 돌아갈 때 선물로 받아왔다고 한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인어 고기를 깊숙한 찬장에 숨겼는데 이 모습을 본 딸이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먹어버렸고 남자는 그 사실을 깜빡했는지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어느덧 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혼인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됐고, 몇 년 뒤 다른 남자와 재혼했지만 역시 비명횡사했다. 이렇게 그녀와 혼인한 남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여인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 외로움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사람이란 세월이 지나면 늙기 마련인데 여인의 외모는 주름은커녕 오히려 점점 어려지는 것이었다. 늙지 않는 외모와 기구한 팔자를 이상하게 여긴 딸은 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인어 때문에 불로불사의 몸이 됐고, 그 대가로 남성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저주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죄책감을 느낀 딸은 속죄를 위해 출가해 비구니 스님이 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나무 심는 공덕을 쌓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800년 후, 긴 방랑의 세월을 보낸 스님은 마침내 자신을 지배하던 인어의 힘이 모두 없어진 것을 직감했다. 이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뒤 기쁜 마음으로 숨을 거뒀다고 한다. 현재 '쿠인지(空印寺)'라는 사찰 근처에는 팔백 비구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다고 전하는 동굴이 위치한다. 팔백 비구니 설화는 지금도 각종 소설과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팔백 비구니 설화가 일본 곳곳에서 확인되는 이유는 그녀가 출가 후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수미단을 노니는 불교미술의 인어

우리나라에도 인어 설화가 존재한다. 여수와 부산, 제주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인어 스토리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 거문도의 인어 '신지끼'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마다 어민들에게 모습을 비추어 날씨를 알려주는 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어를 표현한 시각 자료도 있을까? 물론이다. 바로 불교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당 내부에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설치된 '수미단(須彌壇)'이다.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불단인 수미단은 세상 중심에 우뚝 솟은 정상, 즉 부처님이 사시는 불국토를 의미한다. 수미단은 유토피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을 상징하는 온갖 길상 문양이 새겨진 장엄 세계로 표현된다.

수미단 가운데 인어가 확인되는 사례는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이 있다. 두 수미단에 등장하는 인어는 같은 듯하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다. 먼저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인어는 측면 위아래에 위치하는데 민머리에 수염이 달린 얼굴이 마치 허허 웃는 할아버지처럼 친근함이 묻어 있다. 특히 아래쪽 인어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누구라도 부처님에게 다가가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어로 보여주는 포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 인어는 이와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준다. 떡붕어를 연상시키는 몸에 통통하고 뽀얀 피부와 양쪽으로 묶어 올린 상투 표현이 인상 깊다. 부처님 곁에 머무르며 시중을 드는 천진난만한 동자가 연상된다. 앳된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통도사 인어는 함께 표현된 사자와 기린 등 갖가지 서수와 함께 모란 꽃밭 같은 수미단을 자유롭게 노닐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 경전 변상도와 불화 곳곳에도 인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민화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불교가 얼마나 자유롭고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 종교인지 인어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불국토란 미묘하고 신비한 요소들로 가득 찬 유토피아로, 이 무한한 곳을 표현하는 건 우리가 지닌 상상력의 몫이다. 불교문화에 어떤 이유로 인어가 존재하는지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인어에게서 불국토에 도달하고픈 염원과 그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염원을 마음에 품고 이상세계인 불국토를 상상하는 건 어떨까? 수미단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은 저 인어들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김용덕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각자 자리서 당당하게 빛나기를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㊳ '남남'(2023)



드라마 '남남'은 헤어지면 남이 되는 부부와 달리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깊은 인연을 철부지 엄마와 어른스러운 딸의 이야기로 그린 작품이다.
사진 출처=ENA 공식 유튜브 동영상 캡처

천륜으로 이루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각별한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특별한 예를 본다. 바로 어머니와 일상을 함께하는 딸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SNS에서는 이것을 '엄미새'(엄마에게 미친 사람)라고 표현하며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부모에게서 찾는 것이 한 원인이라며 이성을 찾아 연애하는 것보다 엄마와의 교감을 더 원하는 현실이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보다는 친근한 편이다. 아빠와 아들이 여행을 가는 일은 보기 힘들어도 엄마와 여행하는 딸은 흔하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은 어색해 보여도 엄마 손을 잡고 상점가를 다니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정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와 딸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남남'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월산경찰서 경무인사계 주임으로 근무하던 김진희(배우 최수영) 경위는 경찰서의 낙하산 인사 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 무마용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남촌파출소로 좌천된다. 그런데 하필 남촌파출소는 거침없는 진희의 말투 때문에 경찰 초임 시절 악연이 있는 경찰대 선배 은재원(배우 박성훈) 경감이 소장으로 있는 곳이다. 게다가 첫날부터 진희를 적대시하는 파출소 동료들의 태도에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다.

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진희의 엄마 김은미(배우 전혜진)는 동안인 데다 딸과는 워낙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 종종 사람들이 둘을 자매로 착각하곤 한다. 여기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은미가 고등학생 때 진희를 낳아서 둘의 나이 차이가 스무 살이 채 안 된다는 점이다.

소싯적 '좀 노는' 학생이었던 은미는 친구 오빠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낱 아이들의 불장난일 뿐. 남자 집안은 남자를 전학시키기로 했고 친구는 순진한 자기 오빠를 꾀었다며 패거리를 몰고 와 폭력을 행사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남자를 만난 은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른의 사랑을 하고 헤어졌다.

드라마 '남남'은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젊은 남자만 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고, 딸에게 클럽에 가자고 조르는 거침없고 철없는 엄마 은미와, 그런 은미의 보호자이자 집사, 남편이자 애인 역할을 해내며 살아가는 딸 진희의 이야기다. 자매 같은 모녀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면서도 미혼모라는 묵직한 소재를 꺼내며 '엄마와 딸'의 의미를 묻는다.

스무 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고등학교 친구인 김미정(배우 김혜은)과 미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낳은 은미는, 미혼모가 정상적인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아랑곳없이 타고난 엄마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진희를 키웠다. 그런 은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드라마 초반에 등장한다.

밤늦게 진희가 골목길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손을 잡은 여자가 뛰어오는가 싶더니 곧이어 "유괴범을 잡아 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진희는 발을 걸어 유괴범을 넘어뜨려 아이를 구해내고 경찰에 신고하는데, 그사이에 뒤쫓아온 아이 엄마가 넘어진 유괴범을 빗자루로 마구 때린다. 보다 못한 진희가 빗자루를 뺏자 흥분한 아이 엄마는 진희를 한패로 몰며 공격한다.

이때 나타난 은미는 여자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때려?"라며 일갈을 한다. 진희는 아이가 유괴당해서 그런 거라며 은미를 말리지만, 여전히 머리채를 놓지 않는 은미의 말.

"세상 어떤 어미가 애는 나 몰라라 하고 유괴범부터 족치냐? 애가 위험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그게 어미야?"

사실은 아이를 유괴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철없는 엄마 은미와 어른스러운 딸 진희 미혼모 이야기로 엄마와 딸의 의미 물어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부모 자식 간 인연 관계에 애착 말고 각자의 삶서 홀로서길



드라마 '남남' 포스터. 사진 출처=ENA

사가 학대받는 아이를 구출했던 것. 그 짧은 순간에 은미는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 엄마의 실체를 파악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남촌파출소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 관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던 진희는 살인 사건을 쫓던 중 스토커처럼 은미를 따라다니는 남자를 붙잡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는 스토커가 아닌 진희의 친부 박진홍(배우 안재욱). 은미가 일하는 병원 원장이 진홍의 선배 의사여서 우연히 병원을 찾은 진홍이 30년 만에 은미를 만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딸이 있음을 알고, 다시 만나자며 은미를 쫓아다닌 것이었다.

30년이라는 세월에도 서로를 잊지 못했던 은미와 진홍은 결혼을 생각하기에 이르고, 진희까지 함께 진홍의 부모를 만난다. 예나 지금이나 안하무인인 진홍의 부모는 처음 만난 진희에게 유학을 권하며 의사나 교수가 되라고 한다.

진희가 선택한 경찰이란 직업을 존중해 달라는 진홍의 말에도 "머리 좋은 아이를 돈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했다"면서 은미를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는 부모들. 결국 참다 못한 은미는 "내 딸, 아저씨 아줌마 손녀로 못 준다"고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애 숨 막혀 죽이기 딱 좋은 양반들"이라면서 진홍과의 결혼마저 포기한 것.

자신들이 대단히 훌륭한 부모인 척하지만, 진홍의 부모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강요하며 아들의 첫사랑을 무참히 짓밟았고, 그 결과 쉰을 넘긴 나이에도 독신으로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런 이들이 미혼모라는 약점을 안고도 씩씩하게 진희를 키워낸 은미에게 부모 노릇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

진희의 친부인 진홍조차도 진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은미의 딸'이라고 한다. 자신은 딸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진희는 온전히 은미가 키웠다는 의미를 담아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혈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해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온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는 은미의 친구인 김미정(배우 김혜은)과 미정의 어머니 금순(배우 이덕희)을 비중 있게 보여준다. 고등학교 시절 미정은 은미의 집으로 쳐들어가, 임신한 채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은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지극정성으로 은미와 진희를 돌보았다. 심지어 금순은 호적에 은미와 진희를 딸과 손녀로 올려두었다. 이처럼 남을 내 가족처럼 아꼈던 미정과 금순의 마음은 임신한 여고생 가을(배우 김세원)을 보살피는 은미와 진희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철부지 엄마 은미와 쿨한 딸 진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남남'은 '남이 되고 싶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줄인 말이다. 수많은 생의 인연으로 만난다는 부부도 헤어지면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부모와 자식이 맺어온 인연의 깊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관계조차도 결코 애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애착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니, 애착을 떠난 자는 근심도 두려움도 없다"(〈법구경〉)라는 말씀처럼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내 뜻대로 구속하려는 마음 또한 '고통의 원인'일 뿐이다.

세상 무엇도 '내 것'이라 할 것이 없으니 자식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진홍의 부모처럼 내가 낳았다고 해서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도,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부모에게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의지하면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부모와 자식은 '남이 되고 싶지만… 남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닌, '남이 될 수 없지만… 남처럼 살 줄 아는 우리'를 줄인 '남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 내 소중한 부모가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완전한 개체로 빛날 수 있도록.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혼자만의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떠나는 진희와 그런 딸의 독립을 섭섭해하면서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만의 순례길을 떠나는 은미의 모습처럼 말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대행 스님

끝간 데 없는 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도 즐거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착 놓고 '이 즐거움도 거기서 즐겁게 나오게 했구나.' 또 괴로움도 '거기서 괴롭게 나오게 했구나. 모두가 그놈한테서 나온 거로구나.' 이러면서 지켜보시라 이겁니다. 팥죽 속에서 팥죽 방울이 다 나온 거지 팥죽이 없는데 어떻게 팥죽 방울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렇게 팥죽 방울이 많이 나와서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꺼지고 일어나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다 팥죽 솥에서 팥죽 끓듯 하는 살림살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싸 버리고, 보면 없어지고 들으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시는 것이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그 발자취가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그 자취를 걸머지고 다니는 마음이 있다면 내놓으시라구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이가 없고 고정됨이 없고 그대로 여여하게, 나쁘든 좋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부서지든 변하든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끊임없이 지금 흘러 돌고 있습니다, 쳇바퀴 돌듯.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사대가 흩어져도 그 의식은 남아서 또 고생할 바에야 살아서 아주 죽어 버려요. 살아서 죽는 것이 열반이지 그냥 죽는 것은 열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서 마음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죽은 그 마음이, 바로 살아 있는 것도 아니요 죽어 있는 것도 아닌 가운데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한 주먹이 불끈 솟아서 하늘을 받치고 땅을 한 발로 디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또 한마음으로 모든 수레를 굴린다는 그 자체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놓고, 놓는 마음에서 자기가 하는 사이가 없이 한마음 낸다면 그게 법이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 나오고는 "스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정성을 지극하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값싼 마음이라면 어찌 마음공부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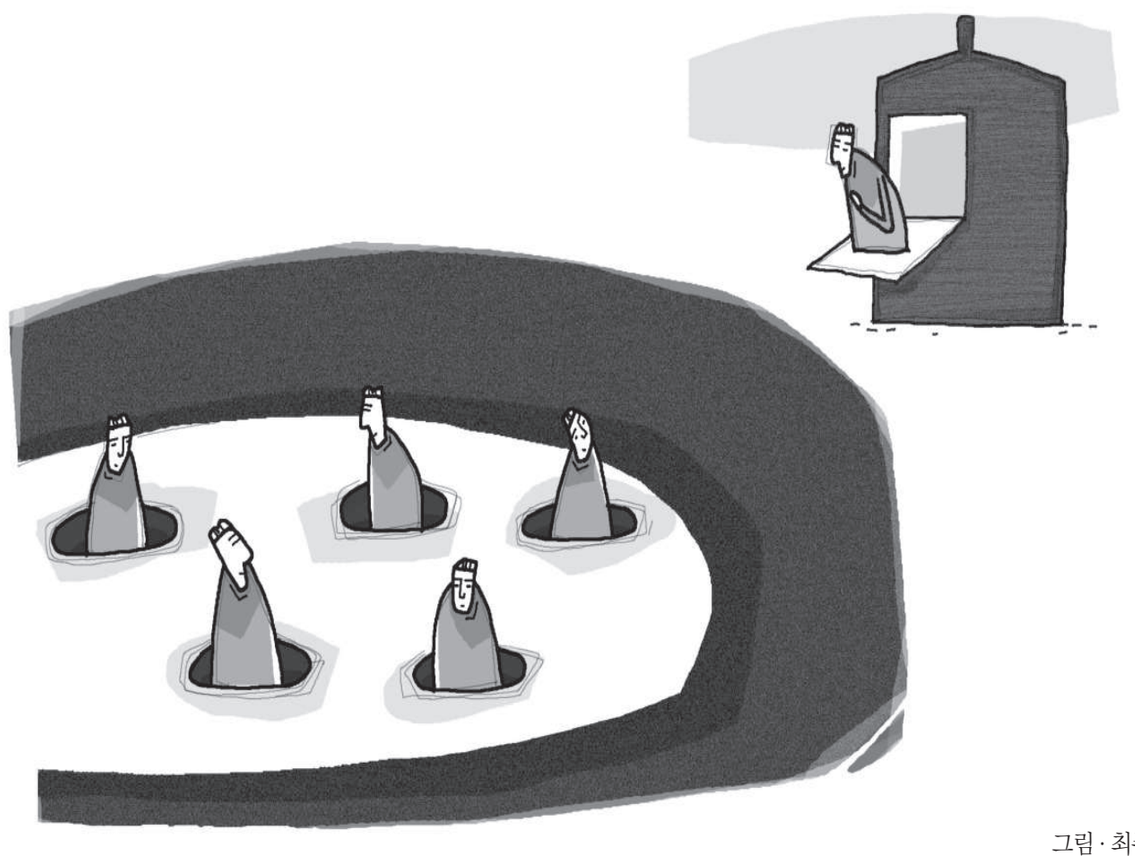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스리는 그 마음의 보배를 간직하면서, 나오는 여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다스리면서 거기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또 굴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병이 났어도 너무 늦지 않았으면 낫게 할 수 있고 너무 늦었으면 몸을 바꿔서 또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두루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자로서 공덕을 펴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생각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끝 간 데 없이 공덕을 받아서…. 악업도 수미산만 한가 하면 선업도 수미산만 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악업도 없고 선업도 없이 공덕을 받는다면 더욱더 좋구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있지만 이 도리의 공덕을 모른다면, 그리고 무심도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면 앞으로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마음공부 하셨다가 이다음에 몸을 원점으로, 사대로 흩뜨려 보내고도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보배 씨로 출현해서 정말 무심도법의 첨단 과학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왔다'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능력자가 되고 대자유인이 돼서 자력과 광력과 전력과 통신력을 자재로이 끌어서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그런 연구와 그런 기술과 그런 의학과 그런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도리를 내놓아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교과서로 나가게 한다면, 유의 세계 무의 세계 모든 걸, 즉 말하자면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종합해서 교과서에 실리게 한다면, 또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물리가 터진다면 기술과 과학 분야에 첨단을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배출되어 아마 우죽 쏟아지듯 할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대물리가 터진다면 바로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또 우리가 우주적으로도 알아야 첨단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물질로써 뭉쳐져 있는데 그 물질로 뭉쳐져 있는 자체가 바로 바탕이 되고 있으니까요. 바탕이 되고 있어요. 뭐냐? 지수화풍 바탕이요. 그 지수화풍 바탕 때문에 이 컵이 나왔다 이겁니다. 컵이 생겼죠. 네 가지가 모두 한데 합쳤는데, 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섯 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도리를, 무심의 도법을 정말 캐치한다면 모든 것을 지수화풍의 그 바탕에 의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으로 능히 들이고 내고 하면서 정신과학으로 일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첨단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산 법문이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실천궁행하는 이런 도법을 가르치신 거지 '너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 이런 법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물질세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끄달려서, 죽었다 해도 여러분 육신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의 의식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재생하면 그리로 또 같이하려고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허허허. 그래서 죽게 되면 부처님 성전에 같이 한자리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살아생전에 독사한테 물리고 뱀한테 물리고 곤충한테 물리고 짐승한테 물릴까 봐 무서워하던 의식이 있어서 거길 건너가지 못하죠.

우리가 물질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물질화로 아주 백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체가 없다는 그 소식도 몰라요. 그런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체가 없는 혼백인데도 자기가 체가 있는 양, 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배 오기를 기다리며 10년이 되든 오백 생이 되든 거기 섰으니 아니, 배가 옵니까? 글쎄, 빠져 죽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찰나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적 의식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벗어 놔라 이 소립니다. 물이 깊어서 빠져 죽을까 봐 배 오기만 기다리니 어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고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떻게 부처님 세계의 맛을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러고 있지요.

세 단계의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여러분이 타 죽을까 봐 못 건너가는 데가 있어요. 우주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예요.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바로 사대가 무너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내 마음은 그대로,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또 어디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즉 말하자면 소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새 부부가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짐승들 곤충들 사는 데로 들어가질 않나. 자기가 모르니까, 귀도 먹고 눈도 멀었으니 어찌 그것을 다 보고 들어가리오, 이거예요. 합류화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한데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죠. 우리 사람 사는 것도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공업가는 공업가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이러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겠죠. 그냥 자연적으로 모이듯이 그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집에 들어가질 않나, 독사집에 들어가지 않나, 염소집에 들어가지 않나, 개집에 들어가지 않나…. 도대체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물질적인 의식들을 다 놓는다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 첨단을 알고 한 생각 끄덕하면 벌써 건너가 있고, 끄덕하면 저기 가 있고, 만 리라도 끄덕하면 가 있고, 내 몸 아닌 내 몸이 수없이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 가지고 수없는 중생을 건지고,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수없는 중생을 이끌어 가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겁니다.

자력은 인간의 마음으로 쓰기 때문에 한계가 없지만 자석은 물질이라 쓰는 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한계의 도리를 알 때 무심의 도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만사를 한 주먹에 놓고,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자유자재하더라 이런 거지요.

그러니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유자재하더라 이거지요.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남의 부모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으니 풀 한 포기도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심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진리가, 끝 간 데 없는 진리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로구나. 마음 자체의 씨가 바로 보배로구나. 그러면서도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허공을 쥘 수 없고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마음이 그렇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묘법을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바로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직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요, 아까 얘기를 했어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희미하게 가는 것 같아요. 허이구, 참.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 있는 그 마음들이, 의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도 되지마는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 위라는 세상, 장이라는 세상, 간장이라는 세상, 소장이라는 세상, 이름이 그렇게 많아서 이걸 세계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을 해코지하게도 나오고 남을 해코지하게 마음을 일으키게도 하는 모든 의식들을 침착하게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고,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놓고 나는 종노릇을 하십시오. 몸은 종노릇을 하면서 그 다스리는 마음은 항상 한마음으로 돼 주고 겸손하게 돼 주시란 얘깁니다.

아니, 내 몸속에 있는 진드기가 보기 싫고 촌챙이가 보기 싫고 거위가 보기 싫고 이렇다면 어떻게 내 몸을 이끌고 다닙니까? 그러니 그것도 존중해 줘야지요. '아, 그것도 나로구나. 나를 끌고 다니는 바로 너로구나.' 하고서 한마음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고 '너희가 모두,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나로구나.' 하고 인정을 해 줘야 자기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걸 명심하시라 이겁니다. 자식도 잘못하면 "저 도둑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믿고 가르쳤더니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주는 게 부모지 받는 게, 달라고 하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거미의 부모도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는 껍데기로 화해서 그냥 말라서 가루가 돼 버립니다. 어머니는 알을 낳아 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고선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낌없이, 자식이 죽게 되면 생명을 대신해 주리만큼 그렇게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껍데기로, 껍데기로 껍데기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해 갑니다. 그렇게 자기는 껍데기만 남아서 나중에 함께 가자고 해도 자식들이 안 가지요. 몸뚱이도 가지 않죠. 자기 따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했다, 아무리 재산을 사랑했다, 집을 닦고 깨끗하게 잘해 놨다, 몸뚱이를 깨끗하게 씻고 바르고 온통 귀걸이를 달고 잘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캠핑 와서 그저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놀다가 가기 위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풀잎의 이슬처럼 왔다가도 그냥 스쳐 가듯이 그냥 또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애들이 공기를 놀다가도, 내 땅 네 땅 하고 놀다가도 저녁때 엄마가 부르면 으레 다 버리고 툭툭 털고 일어서듯이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서 무한의 도리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현실에서도 남의 뿌리를 싱싱하게 도와주십시오. 뿌리를 도와주면 이파리도 가장구도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한마음으로 도와주면서 건져 주면서, 자기가 예쁘다고 뿌려 놓은 씨도 건지면서,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아마 스스로 첨단의 심성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능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할 때, 저 풀 이파리 하나도 한마음 아닌 게 없이 그렇게 될 때 그 한마음 속에서 일꾼이 나온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나라에 일꾼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결처럼 스쳐 가는 그러한 논다니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만이 생겨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고생하듯 우리 국민은 서로가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자식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 속에서 그런 부모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종성에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모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참, 앞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화목한 꽃이, 인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꼭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바담 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 풍'으로 알아들으십시오. 나는 두서없이 말했더라도 차근차근히 생각하셔서 내 한마음을 그렇게만 한다면 자식들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내 부모 조상들도 길을 찾을 것이요, 묵은 빚을 갚을 것이요, 햇빚을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둘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오.' 하고서 나아가실 겁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시구요, 잘 배우신 양반들이 침착하고 체계 있게 생각하시고 한번 써 놨다가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다음은 오늘 준공법회에 즈음하여 먼저 무애 스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애 스님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큰스님 말씀을 한 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덥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또한 이렇게 다 밝으니 아마 많은 감응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게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맹이부터 시작하면 껍데기는 저절로 커지지만 껍데기부터 커지면 알맹이가 들지 않듯이 우리 도량도 공부하시는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있음으로써 더 커지게 되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복 짓는다고 쫓아다니면서 한 시주는 공덕이 되지 않겠지마는 한마음으로 시주한 것은 참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김 선생님께서, 전에도 이곳의 중창불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주해 주셨으니 이 도량에서 모든 분들이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도량이 더욱 빛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복 짓는 일이라고 강요해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셔서 동참해 주시면 아마 두루두루 공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데 많이 동참하시어 각자가 무량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내가 잠깐 말귀를 잡아야 되겠군요. 여러분이 '내가 요만한 시주를 하면 그만큼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무애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한다면 여러분 앞에 무주상 보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든 광주든 본원이든 여기든 어디고 간에 불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디든지 무주상 보시로 하시면 무주상 보시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해 놓은 것은 여러분이 갖지 않는 게 없으니 누구를 줬다 안 줬다 할 것도 없죠.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7월 1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조상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이 둘이 아니게 모두 합쳐서
나의 마음속에 찰나찰나 들고 나시니
어찌 내가 당당치 않으리오.

일일시호일

가족 위해 버틴 13년 한국살이, 신장암 앞에 멈춰
"다시 일해 아내와 두 아들 돌보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출신 만줄라 씨, 홀로 한국서 생계 부양
병원비 4000만 원…앞으로 치료도 큰 부담
한 가정 무너지지 않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⑭ 추임새에도 때가 있다

지친 마음 일으키는 제때의 응원

"얼씨구!"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객석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온다. 처음 국악 공연을 접한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한다. 연주 중에 소리를 내도 되는 건가 싶어서다. 클래식 공연에서는 연주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는 것이 예의다. 박수도 악장과 악장 사이에 치면 실례가 된다고 배운다. 많은 클래식 공연에서는 무대와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하지만 국악에서 추임새는 자연스럽다. 판소리와 산조를 비롯한 우리 음악에서는 추임새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추임새는 연주가 끝난 뒤 보내는 박수가 아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가 함께 숨 쉬는 방식이다. 클래식 공연에서 무대와 객석은 나뉜다. 하지만 국악에서는 객석도 음악을 만든다. 추임새가 있는 순간, 관객도 음악에 참여한다. 이러한 호흡은 국악 공연의 큰 매력 가운데 하나다.

연주자에게 닿는 소리

연주를 하는 내게 추임새는 단순한 감탄으로 들리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연주를 이어가다 보면 나 역시 어느 순간 손보다 마음이 먼저 지칠 때가 있다. 집중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평소처럼 연주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소리에 힘이 빠졌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바로 그때 객석 어디선가 "얼씨구"가 들려오면 신기하게도 다시 마음이 모인다. 누군가 내 소리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감각이, 흐트러졌던 연주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추임새는 단순히 힘을 주는 말이 아니다. 추임새는 소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추임새는 소리보다 먼저 귀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라는 신호다. 연주자는 그 신호를 받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무대 위에서 혼자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객석과 연결돼 있다는 그 감각이 연주자를 다시 살린다. 긴 연주 끝에 지쳐가던 소리가, 그 한마디에 다시 앞으로 걸어 나온다.

응원에도 때가 있다

판소리에는 '일고수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판에서는 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고수와 관객의 역할은 다르다. 그러나 좋은 추임새는 누구의 것이든 먼저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관객이 고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악 공연에서 관객의 추임새 역시 연주에 생기를 더하고, 연주자에게 '함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전한다. 그래서 국악은 객석과 무대가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나도 관객석에 앉을 때면 추임새를 넣어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다. 연주자가 공연 시작 전 "추임새를 많이 넣어주세요"라고 말해도, 다들 조용히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소

국악 연주에 생기 더하는 관객의 추임새
언제 건네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 이끌어
보시도 타이밍 중요, 함께임을 느끼게 해

리를 내는 것이 선뜻 되지 않았다.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마음이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연주의 흐름을 읽지 못한 추임새가 연주를 끊듯,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한 응원도 때로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큰 추임새가 좋은 추임새는 아니다. 오히려 연주를 덮지 않을 만큼만 건네는 한마디가 더 깊이 닿는다. 소리를 앞지르지 않고, 연주자의 호흡을 따라가는 추임새일수록 공연은 더욱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좋은 추임새는 소리의 크기보다 타이밍에 달려 있다. 흥이 올라올 때, 연주자가 숨을 고를 때, 소리가 막 피어오르는 그 순간의 한마디가 연주 전체를 살린다. 같은 말이지만, 언제 건네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추임새는 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의 것이다.

보시도 닮아 있다

불교에서는 재물이 없어도 실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무재칠시(無財七施)'라고 한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얼굴,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몸으로 돕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보시가 된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큰돈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다.

보시도 추임새와 닮아 있다.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건네는 위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한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너무 일찍 건네는 "괜찮아질 거야"가 때로 위로가 되지 않듯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건네느냐다.

그런데 추임새와 보시에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둘 다 받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긴 산조를 연주하다 지쳐가는 연주자에게 "얼씨구" 한마디가 닿는 순간, 그 연주자는 무대 위에서 혼자가 아님을 안다. 보시도 마찬가지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 그것이 이미 보시다. 무재칠시도 결국 상대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추임새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이듯, 보시도 '당신이 보인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좋다. 힘이 빠지는 순간 건네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한마디가 때로 큰 선물보다 오래 남는다. 그 한마디는 누군가의 지쳐가던 연주를 다시 살리는 "얼씨구"가 될 수 있다.

국악에서는 관객도 연주자다. 삶도 그렇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건네는 한마디로 함께 삶을 연주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가야금 명상곡 '아제아제'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⑰ 조용한 혈관의 경고, 고지혈증

방치 시 심근경색·뇌졸중 위험

현대인의 식탁은 풍요로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고지혈증이다. 익숙한 이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콜레스테롤 문제' 정도로 가볍게 여기곤 한다.

그러나 고지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되며,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과도하게 증가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LDL), 고밀도 지단백(HDL), 중성지방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 증가하면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한다.

반면 HDL은 혈관 내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몸에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그때서야 이미 혈관이 상당히 좁아졌거나 막혀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지혈증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 질환의 원인은 다양하다.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열량 섭취,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생활 습관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유전적 요인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좌식 생활의 증가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고지혈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고지혈증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시행하는 혈액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이, 혈압, 흡연 여부, 당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수치라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기름진 식습관·비만 등 원인, 무증상 주의
꾸준한 식단·체중 관리, 규칙적 운동 要
약물치료, 상태별 조정돼 임의 중단 금물

치료의 기본은 생활 습관 개선이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적절한 체중 관리, 금연과 절주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은 스타틴 계열로,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거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다양한 약제가 사용된다. 약물치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지혈증을 둘러싼 오해도 적지 않다. 체중이 정상이라도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약물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지만, 이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에 있다. 성인의 경우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다. 오늘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미래의 심장과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다.



박종선
동국대일산병원 심장내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⑭

느리게 가지만 멈추지 않는 길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 봉제 교실. 선배와 후배가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후진국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길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대표적인 길은 대학 진학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재가불자 비영리단체인 '수레꾼'에게는 고등학교를 세울 만큼의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0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 뒤,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공예학교의 설립'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뿌리는 앙코르 제국입니다. 앙코르 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약 600년 동안 존재했던 강국이었으며, 무엇보다 찬란한 예술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예술적 재능의 DNA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오지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재능마저 사라질 리는 없다!' 이러한 생각에서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봉제반과 목공예반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좀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어렵게 설득해 모은 봉제반 학생은 다섯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다섯 명을 프놈펜으로 보내 3개월 동안 합숙하며 봉제 기술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달 프놈펜의 봉제 선생님들을 초청해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태국과의 국경 전쟁이 두 차례 발생했고, 국경 마을인 뽀디봉 마을 주민 모두가 피난을 떠나 천막에서 생활해야 하는 큰 아픔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당연히 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제 삶의 터전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현실을 직접 경험한 뒤, '기술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모집하기 어려웠던 신입생 6명이 한꺼번에 공예학교의 문을 두드렸고, 현재 총 10명이 열심히 봉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토록 불과 2년 사이에 공예학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봉제를 배웠던 학생들이 이제는 신입생 여섯 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봉제를 가르치는 선배들과 배우는 후배들 모두 '수레꾼'이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란 사실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다시 후배를 가르치는 선순환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느리게 가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 길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⑦ 빗소리 머문 도량, 여름 공양의 시간을 열다

제철 본연의 맛 살려 몸·마음 맑히다

7월 장마 전, 사찰은 비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배수로를 정비해 빗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했고, 법당과 요사채, 공양간 곳곳을 점검하며 습기에 대비했다. 장독대와 저장 식재료를 살피고, 빗길로 미끄러워질 수 있는 길을 정비하는 일 또한 빠뜨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이러한 준비는 함께 살아가는 대중과 모든 생명을 배려하는 수행의 실천이었다.

공양간에도 여름이 찾아왔다.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계절엔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 제철 식재료가 공양상에 오른다. 올해 여름 공양의 주인공은 하동의 햇배와 참외다. 계절이 가장 무르익은 때 수확한 과실은 별다른 양념 없이도 깊은 향과 맛을 품고 있어 사찰음식이 추구하는 자연 그대로의 미덕을 오롯이 전해 준다.

먼저 배냉면에 곁들일 백오이 오이지를 담갔다. 삼베 주머니에 담은 고추씨를 유리 용기에 넣고 백오이를 차곡차곡 담은 뒤, 천일염을 넣어 한소끔 끓인 소금물을 부어 숙성시켰다. 은은한 고추씨 향이 배어든 오이지는 아삭한 식감과 깔끔한 감칠맛을 더해 여름철 잃기 쉬운 입맛을 돋우고 장마철 무더위에 지친 몸을 편안하게 달래 준다.

이어 제철을 맞은 하동 햇배를 곱게 갈아 면보에 정성껏 걸러낸 천연 과즙으로 냉면 육수를 만들었다. 여기에 식초와 겨자, 약간의 조청을 더해 완성한 육수는 배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맑은 향을 그대로 품었다. 고명으로는 곱게 채 썬 동치미무와 싱그러운 오이를 정갈하게 올려 맑은 풍미와 여름의 청량함을 더했다. 과한 조미료 대신 자연이 내어준 맛을 살린 배냉면은, 무더운 여름날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특별한 사찰 공양으로 거듭났다.

양념 없이도 깊은 향·맛 지닌 제철 과실
햇배·참외로 차려낸 자연의 맛 사찰음식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함 일깨워

참외 루콜라 샐러드 또한 여름 공양의 별미다. 참외는 필러로 얇고 길게 저며 부드러운 띠를 만들고, 씨는 곱게 걸러 조청과 매실청, 소금, 올리브유를 더해 은은한 단맛의 소스를 만들었다. 신선한 루콜라는 5㎝ 정도 길이로 정갈하게 손질한 뒤 얇은 참외로 감싸고, 마지막으로 참외 소스를 곱게 둘러 마무리했다. 자연이 지닌 색과 향, 맛을 그대로 담아낸 이 한 접시는 사찰음식이 추구하는 담백함과 절제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사찰음식은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다. 제철 식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불필요한 양념을 덜어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공양의 기본이다. 담백하지만 깊은 맛은 몸을 쉬게 하고 절제된 식사는 마음까지 맑게 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한 그릇의 음식 속에서도 수행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장마철에는 무엇보다 음식의 청결과 정성이 중요하다. 습한 날씨 속에서도 식재료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만큼만 조리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절제와 나눔의 정신은 오래전부터 사찰 공양에 깃들어 온 수행의 가르침이다.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서부터 공양을 나누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은 서로를 위한 배려이자 수행의 연장이다.

빗소리가 도량을 감싼 여름날, 사찰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또 하나의 계절을 맞이했다. 장마를 준비한 손길과 공양을 올리는 정성은 모두 수행으로 이어졌고, 계절이 내어준 소박한 음식은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의 밥상이 됐다. 오늘도 산사는 빗소리와 함께 자연을 담은 여름 공양의 시간을 조용히 열어가고 있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㉗ 고운 뒷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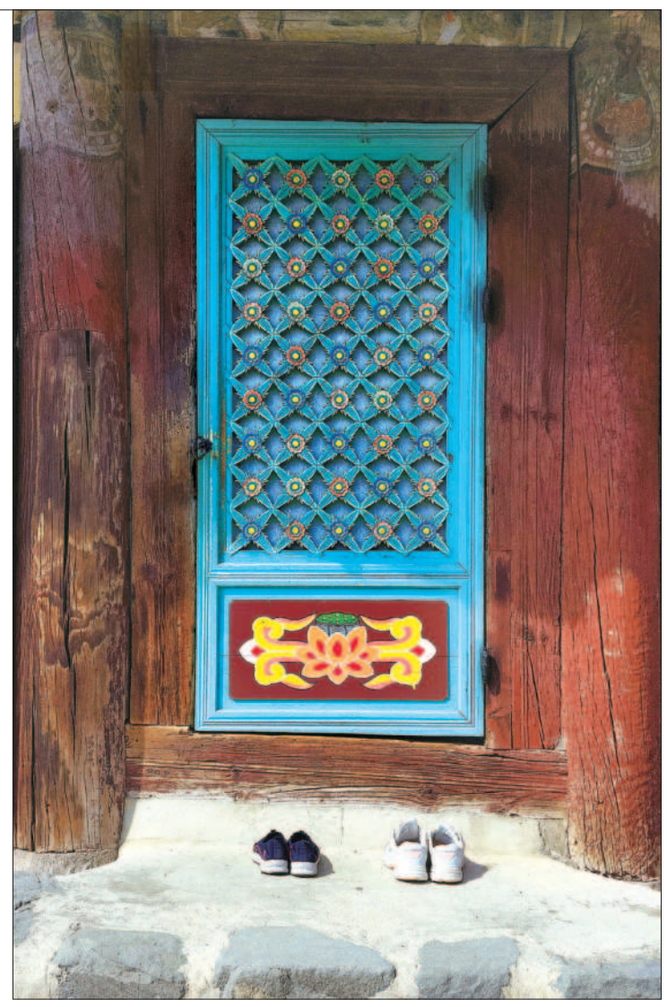
법당 들어가는 문 섬돌 위에 신발 두 켤레. 뒷모습이 곱다. 꽃살문의 꽃잎이 떨어지면 이런 모습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이렇게 뒷모습이 고운 사람은 누구일까. 두 사람은 함께 왔을까, 아니면 우연히 같은 시간에 법당에 머무르게 됐을까. 함께 왔다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일까. 모녀, 오누이, 친구? 어떤 관계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다정한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벗어 놓은 신발이 합장한 손 같은 사람이라면. 이 신발의 주인을 친구로 둔 사람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너그럽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내게로 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그가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했음을 얼마나 여러 번 깨달았던가."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가 에두아르 부바의 사진에 글을 붙여 만든 책 〈뒷모습〉에 나오는 문장이다.

성남 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 창건, 1673년(조선 현종 14) 현종이 딸 명혜와 명선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 넋을 달래 주기 위해 중창한 고찰이다. 이 절은 지금 위례 신도시와 성남시 태평동 일대에 둘러싸인 도심 사찰이 됐다. 혹시 이 도시에서 뒷모습이 고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봉국사 대광명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냐고 물어볼 작정이다.

우리가 절을 찾는 이유는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손영자 작가



봉국사 대광명전.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최고급 양장본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이 드는 스님들에게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으로

마이크와 1m 멀리서 작은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림.

마이크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본품은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호사다마는 불행의 예고가 아니다

현불논단



성제 정사
위덕대학교 전법원장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스페인은 월드컵 우승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거리에서는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는 큰 산불이 번졌다. 한쪽에서는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떠오른다. 좋은 일에는 마가 따른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쁜 일이 온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잘될 때일수록 마음을 더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힘들 때보다 잘될 때 방심한다. 건강하고, 가족이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리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잘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는 마음도 슬며시 올라온다.

주식시장만 봐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 AI 반도체 주가가 오를 때는 모두가 낙관적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하다가 몇 번 수익을 내고 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다 어느 날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며칠 전까지 "없어서 못 산다"고 하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될 때 방심해
이룬 성취는 나뿐 아닌 많은 인연 덕
잘될 때일수록 방심 말고 마음 살펴야

던 사람이 갑자기 "큰일 났다"고 한다. 반도체가 며칠 사이에 불량품이 된 건 아니다. 결국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식 차트만큼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실감 나게 보여주는 것도 드물다. 오르는 것도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뜻이다.

호사다마에서 말하는 '마(魔)'도 꼭 밖에서 찾아오는 불길한 존재만은 아닐 것이다. 일이 잘될 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탐욕과 교만, 집착과 방심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특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마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월드컵 우승은 선수 한 명이 만든 것이 아니다. 선수와 감독, 코치와 가족, 팬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부모와 스승이 있었고, 가족과 동료가 있었으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일이 잘될 때 "내가 잘했다"는 말 뒤에 한마디만 더 붙여보면 어떨까.

"많은 인연 덕분이다."

그 한마디면 마음이 조금 달라진다. 교만이 감사로 바뀐다.

수행이라는 것도 어쩌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닐지 모른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휩쓸리지 않는 마음일 것이다.

호사다마는 불행을 예고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할 때일수록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삶의 지혜에 더 가깝다.

시애틀 추장의 편지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밤이면 집 앞 숲에서 쏙독새 소리가 들린다. 새소리를 듣는다는 건 귀가 새소리에 열려 있다는 뜻이다. 귀가 열리면 누군지 궁금해진다. 궁금증을 풀어가다 보면 어느 계절에 어떤 새가 오고 가는지, 새가 활동하는 시간이 낮인지 밤인지 알게 된다.

어느 날 숲에서 소쩍새 소리를 들었을 때 도감을 찾아 모습을 확인하고 무척 놀랐다. 서정적인 소리와 달리 맹금이었다니.

소쩍새 소리를 듣다 보니 솔부엉이 소리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아마 그 소리들 사이에 쏙독새 소리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존재를 몰랐다. 낮에 숲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쏙독새 사진을 보았고, 쏙독새에 관해 하나씩 알아가다 드디어 숲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

개구리는 늘 개굴개굴 소리 낸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해엔가 아주 희한한 소리가 들려 녹음해서 찾아보니 산개구리 소리였다. 경칩 무렵이 되면 달력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게 신기했다. 비가 오려나 싶으면 개구리가 합창으로 먼저 알려준다. 고즈넉한 밤에 쏙독새 소리며 개구리 소리가 창 너머로 들리면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이 떠오르곤 한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못가에서 개구리들이 나누는 논쟁을 들을 수 없다면 인

AI시대 인공지능 운영에 막대한 전력 뿆
전력 생산 위한 우주 데이터센터 논의도
우주까지 닿은 인간의 욕망 되돌아봐야

간의 삶에 무엇이 남겠는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가울 따름이다. 숲으로 비가 쏟아지며 빗방울이 나뭇잎과 만나 내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한다. 욕실에 샤워기가 켜진 줄 알았는데 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세게 쏟아지는 비가 들이칠까 싶어 아주 살짝 창을 열었을 때 마치 거대한 물뿌리개가 숲 위로 물을 뿌리는 듯한 그 소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처음 들었다 생각했지만 정확히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정부는 AI시대에 필요한 두뇌·신체·심장을 한국이 모두 확보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를 떠받치기 위해서 많은 전력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최근 구글과 스페이스X 등 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자 데이터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데이터센터가 뿜는 열을 우주에서 식힌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주는 누구든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공간일까?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모든 나라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우주 탐사를 할 수 있고 만인의 유익을 위해 실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다. 소위 '던 더스크(Dawn-Dusk)'로 불리는 궤도 안에 있어야만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태양을 마주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궤도를 확보하려 우주에서까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쏙독새가 쏙독 쏙독 내게 묻는다. '우주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끝엔 무엇이 남을까?'

社 說

갈등 넘어 미래 세우는 선거 돼야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우려했던 모습도 현실이 되고 있다. 현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사회법 제소가 이어지고 이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공방도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종단의 사법기구와 관계 기관이 절차에 따라 판단할 몫이다. 중요한 것은 선거 국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종단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종헌·종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질서를 꾸준히 정비해 왔다. 선거 역시 그 틀 안에서 관리되고 운영된다. 종단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그 절차와 규범 속에서 이뤄질 때 공동체의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감정적 대립과 외부 여론전에 치우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흑색선전 대신 종책 경쟁 이뤄져야
종단 신뢰 회복하는 전환점 되길

다행스러운 것은 종단 안팎에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종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은 흑색선전과 금권선거를 배격하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수행공동체의 품격에 걸맞은 선거 문화 정착을 당부했고, 포교사단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인신공격을 멈추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경쟁을 호소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정하고 청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하나로 모인다.

이러한 열망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은 상대를 흠집 내기보다 자신이 이끌 종단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종교 인구 감소 대응, 청년 포교 확대, 교구자치 실현, 인공지능 시대 대응 등 한국불교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총무원장 후보들이 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누가 상대의 약점을 더 많이 찾아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종단의 미래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선거권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후보들의 수행 이력과 종책, 종단 운영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해야 하며, 종헌·종법 위반 행위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근 한국불교는 국민들로부터 이전보다 높은 호감과 관심을 얻고 있다. '힙불교'로 상징되는 다양한 문화포교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때일수록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불신과 갈등만 노출된다면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정 수행공동체에 걸맞은 공정한 경쟁과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때 이번 선거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8월 1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8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8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음식의 미래 변화와
사찰음식

2026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엄

2026.8.20(목)
오후 1시 ~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조계사 내)

The International Korean Temple Food Symposium 2026

문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정책연구팀(02-2031-2007)

신청 QR 및 한국사찰음식홈페이지 사전신청 팝업에서 가능(www.koreatemplefood.com)

사전신청하기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후원 문화체육관광부